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2년 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취업관련 동문 간담회 (모교 복지과 李敦碩사무관, 노동부 李載甲고용정책과장, INI STEEL 李準源상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張錫敏수석연구위원, 서울경제신문 朴時龍논설위원, 한국노동연구원 李源德원장, 연합뉴스 安勝涉기자, 매경뉴스 黃仁泰대표, ITP월드와이드코리아 李鎮宇대표)
〈커버스토리 6~7면〉

우리는 바늘구멍 취업난 해결사!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어렵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서울대 졸업예정자 4명 가운데 3명 가량(72.9%)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대가 이렇다면 다른 대학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학을 갓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물론 오랜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의 인력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된 정치 탓이 크다. 정치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경제가 이토록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드는 불상사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치란 한마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가장 큰 존재이유다. 사회질서와 범죄를 잘 다스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고, 경제를 열심히 일해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판은 아예 국정논의는 뒷전이고 「너 죽고 나 살기」식 진흙탕 싸움을 벌이느라 영일이 없다. 아까운 세월 다 보낸다. 정치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합 조정」기능인데 정치인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산다

끼리 만났다면 먹살잡이 편싸움으로 오히려 나라분 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피곤하다.

어디 그뿐인가. 신문만 들춰다 하면 부정부패에 물든 위정자들의 끼리끼리 비리와 뇌물이야기로 지면이 얼룩져 있으니 참으로 속상하고 장탄식이 절로 나온

다. 이렇고도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한번 선거의 해, 정치의 해가 돌아왔다. 오는 6월에는 내 고장 살림을 맡을 일꾼을 고르는 지방선거가 있고 12월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동안 나라 살림을 맡을 위정자들을 잘못 뽑아 보낸 결과가 오늘의 이런 뒤죽박죽 정치를 낳았다고 본다면 국민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웃기를 여려야 한다. 이번에는야말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바로 보고 바로 뽑아야 한다.

학연이나 지역정서에 휩쓸릴 일이 아니다. 금품이나 감언이설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도 산다.

『서울대를 나와도 취직이 어렵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仲〉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典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2002년 방송가의 화두는 오는 3월 출범하는 위성방송과 이에 맞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케이블TV, 지역방송의 갈등구조이다.

위성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화질, 고음질의 서비스 제공과 홈쇼핑, 홈뱅킹 등 쌍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들을 더욱 편리한 세상을 살도록 해주게 된다. 게다가 75개의 TV채널과 10개의 유료 시청채널(PPV), 60개의 오디오 채널서비스가 가능해진 다.

이렇게 위력적인 새 매체의 출현은 기존 타 매체들을 긴장시키고 생존을 위한 재편문제에 부딪히게 만들어 놓았다. 고화질의 위성방송은 기존 케이블TV를 위협할 것이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위성은 전국을 커버해 지역방송사의 존폐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다.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에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를 동시 재송신하도록 결정하면서 지역방송의 결사항전이 끝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위성방송은 경쟁력 있는 지상파 방송을 확보해야 출범부터 안정된 서비스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방송은 위성을 통해 중앙의 방송들이 전국을 커버하면 지역의 시청자와 광고시장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리니 절대로 받아들이 수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방송 매체간 공존 방안



林 炯 斗
한국방송위원회 위원

다매체 시대에 위성, 지상파, 케이블, 지역방송들이 사이 좋게 공존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제 투쟁의

소모전을 종식시키고 매체간 공존방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본다.

케이블TV는 디지털 전환작업을 서둘러 차별화된 채널과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뚜렷한 해법이 없는 지역방송도 여러 가지 시도를 가정보록 할 수 있다.

우선 방송권역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고 공동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위성에 채널사업자로 프로그램 공급하는 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케이블을 통한 역의 재송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방송위원회가 조심스럽게 활로를 찾아주어야 한다.

우선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전국송출을 2년 후로 결정된 것을 더 연기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열악한 지역방송의 콘텐츠를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3월이면 어김없이 위성방송이 출현하게 돼있고 여러 매체들은 공생하며 활로를 찾을 것이다.

그러자면 각 매체들은 서둘러 위성방송 출현에 따른 매체간 공존방

안 연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모두가 더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대학 교수에게도 전성기가 있다

이 글은 미국 Carnegie 재단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의 위상을 조사한 결과를 축약해서 소개한 것이다. 실증적인 국제 비교에 의해 세계 대학 교수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과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어 귀한 지면을 할애 받아 소개한다.

전공 분야의 업적, 경력,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으나 대학 교육의 본질, 대학의 역사, 대학 교수의 역할과 기능, 사명 등 대학 교수로서의 자아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 노릇을 함으로써 대학 기능 자체, 교수의 자화상이 (부분적으로)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학자, 교수(Academy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s)를 같은 의미로 쓰지만 이 둘 모두를 같은 반열에 놓지 않고 차별화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속성상 진리 탐구에 소명감과 헌신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학 교수로서의 자아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 노릇을

함으로써 대학 기능 자체,

교수의 자화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일찍이 Snelberger는 학자의 유형(types)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지식 생산자 집단(Knowledge Producers): 순수 이론가나 연구자들이 해당된다. (Research Scientists) (2)지식 활용자 집단(Knowledge Users): 응용과학자, 교사, 행정가, 관료집단의 공학자, 교육과정 설계자 등이 해당된다.

강준만(1998, 인물과 사상, 7권)은 세대와 관련시켜 대학 교수의 위상을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직업적 전문성을 갖춘 프로페서 (4)상식과 피상적인 지식을 파는 아마페서(Amafessor)가 넘실대는 대학 강단 (5)대중매체에 뺨질나게 얼굴을 들이밀며 스타를 꿈꾸는 텔레페서(Telefessor) (6)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폴리페서(Polifessor): 이 폴리페서 중에는 정·관계에 연착륙하려는 빅 폴리페서(Big Polifessor)와 총장/학장 선거에 일등공신 노릇하여 보직을 탐하고 학교 내부의 권력을 쫓는 - 별로 유능하거나 학문적·행정적 업적이 탁월하지 않으나 학교 내부의 권력(power)에 중독된 리틀 폴리페서(Little Polifessor)가 있다.

이들 분류와 관련해서 학자의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몇 가지 분류를 해 보면,

(7)가르치는 데 유능성을 발휘하는 교수 (8)연구하는 데 유능성을 발휘하는 교수 (9)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을 창출하고 지식을 생산해내는 데(creative mind) 유능성을 발휘하는 교수, 예를 들면 Samuelson, Freud, Sternberg, Fromm, Chomsky와 같은 교수 (10) 새로운 이론이나 독창적인 학설을 교육현장에 응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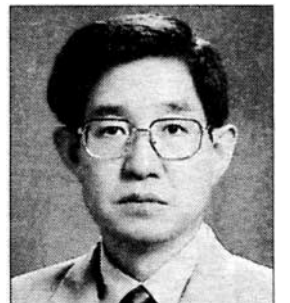
유능성을 발휘하는 교수 (11)지위 지향형의 교수와 과업 지향형의 교수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위 지향형 교수와 그런 mind를 조장하는 관리자가 연구·강의에 전념해야 할 대학 교수들을 감투·보직에 영합하게 해서 대학을 관료화시키고 본업이 바빠지게 하는 것은 학내 개혁 과제이다.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 지향형 교수와 교육 지향형 교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과 기능을 기초로 구분한 것이다. 이런 분류를 종합하면 이른바 대학 교수의 역할·기능상의 정도(正道)는 지식의 소비자/창의적 생산자/연구자/실천가라고(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 교수의 기본 책무인 교육 연구 활동을 정보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전공 분야 또는 담당강의 관련 교과목에 대한 수많은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륜과 능력껏 가공시켜 정보자료에 고부가가치를 첨부하고 새로운 정보자료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창의성이 가미된 정보자료를 초기에 국내외 학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대학 교수가 출판에서 국제화가 늦은 국가로 밝혀졌다. ②대학 교수의 국제 교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나라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홍콩이고 러시아, 한국, 브라질은 그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③많은 대학 교수가 소속 대학의 행정·관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불만은 대학의 관리 운영 체제 및 권한이 중앙집권화된 나라나 분권적이고 대학 교수의 의사 결정이 꽤 존중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④대학 교수에게 기대(요구)되는 전문적 활동으로 교육, 연구, 사회 봉사의 수행이 예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44%)보다도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교수(56%)가 더 많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이 연구 지향형 교수가 많은 나라이다. 세계 대학 교수의 75%는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휘하는 것이 교수의 (업적)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연구 지향적인 대학 교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높다. 이것은 연구업적을 올리는 것이 종신 재직권(tenure)의 획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교수의 신분, 생존 책략과 관련된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고등교육 제도나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가 많지만, 개혁의 동반자인 동시에 당사자이기도 한 대학 운영의 주체(주로 사립대학의 경우)와 대학 교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과의 대응에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8면에 계속)



金正輝
(73년 敎大院卒)
춘천교대 교수

주요목차

- ▲동문을 찾아서8면
한국언론재단 朴紀正이사장
- ▲화제의 동문9면
청계연구소 孫世一회장
- ▲동문기업 탐방10면
대경기계기술(주)
- ▲서울대 가족11면
학술원 李鎬汪회장
-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15면
金甲英(鄭昭盛동문 부인)
- ▲SNUA OPINION LEADER18면
李弘揆 모교 의대 교수

건강을 지킵시다

知的능력과 性的능력은 반비례

20대 후반의 K씨, 그는 결혼한지 6개월만에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의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원치 않은 성적 능력 때문인데, 다시 다른 여자를 사귀기 전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렇지, 뭐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이혼까지 하나 싶어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그 흔한 증상인 조루였다.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무슨 남자가 이래요』라며 방송국에서 젊은 PD로 근무하는 부인이 돌아눕더니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혼율은 196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상승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2배 이상의 증가율을 서구에서는 보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 결혼한 부부 중 5분의 1은 5년을 못 넘기고, 3분의 1은 10년, 10분의 4는 15년을 못 넘긴다.

그 이혼율은 20세 이하의 조혼일수록 증가하며, 또 전문직 여성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더 쉽게 이혼을 한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배우자의 간통이나 배신, 애정상실, 알코올중독,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 등이 거론된다.

이 이혼 중에서 성적인 불만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3분의 1 정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학자들의 얘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그 후의 삶은 과연 즐거운 이혼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듯이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 미국 통계로는 6명 중 5명의 남성이, 4명 중 3명의 여성이 재혼을 한다. 그 시기는 3년 안에 반 정도가 이루어진다.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는 새로운 성적인 자유에 대해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전체 부부 중에서 30% 정도는 성적 소멸이 있다. 마치 엉뚱하게 떨어진 KAL기의 참혹한 죽음처럼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욕망과 관계가 소멸된 상태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주위사



薛滋旭(81년 醫大卒)
서울성의학클리닉 원장

람들 시선 때문에 유지되는 결혼생활이다. 이것은 성적인 권태를 넘어서 감정적, 신체적으로 공허와 탈진을 보인다. 단순한 성기능 장애인 조루나 여성 불감증을 방지하면 성욕저하증, 성기과증으로 발전해서 이런 성적 소멸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다. 머리는 지적능력이 발달할수록 성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성적발달도 늦게된다. 고교 이하의 동창생들과 자신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서울대에 입

학하고 나서부터 몇 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에 대해서 이론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여학생들은 지적이고 강박적

인 경향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단순한 성적인 흥분이 잘되지 않는다. 내가 오르가즘에 이르러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다. 그러다 보면 성적욕구는 떨어지고 남편과의 힘겨루기 양상은 커져만 간다. 그 남편들 입장은 이렇다. 대개의 남자들이란 마를린 몬로처럼 좀 여자가 모자라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초자아의 억압이 풀려서 성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지적인 여성들이 어디 그런가.

성클리닉을 많이 찾는, 성에 대해서 특히 미숙한 서울대 출신들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다. 하기가 뭐 이렇게 변명을 해도 된다. 성욕이라는 것은 워낙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것이어서 육체노동을 하거나 단순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연락처 : 512-1101)

추억의窓

商大 남학생과 동행한 졸업여행
집단 미팅으로 로맨스 만들기도

李笑雨(64년 看護大卒)모교 간호대 교수

작년 가을 참으로 오랜만에 40여 명의 여고 동창생과 버스를 타고 동해안 일대로 「수학여행」 같은 여행을 1박2일 다녀왔다. 떠나기 전날, 집안 정리를 하고 약속 등을 챙겨 마음놓고 다녀 올 것을 대비했다. 고교 및 대학시절 수학여행 떠나기 전날 밤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대학생 때도 4학년이 되면 졸업여행을 학사 과정에 따라 다녀왔다. 1960년대에는 서울대에 여학생이 많지 않아 남학생이 더 많은 학과에서 가정대학, 간호대학을 비롯해 음악대학 등 여학생이 많은 학과에 대표를 파견(?)해 사전 교섭을 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 졸업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 한때 유행했었다. 물론 아예 서울대 여학생은 제쳐두거나 혹은 이미 다른 학과 남학생에게 교섭권을 잃은 남학생들은 서울 시내 모 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제휴하여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안다. 1960년대의 졸업여행은 학생들의 메말랐던 감정을 즐겁게 해주었고, 남·여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운목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과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3년 우리 동기들은 5월경 설악산으로 졸업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상대 학생들도 설악산으로 가기로 했다면 대표 한 사람이 기숙사로 찾아왔다. 안 그래도 우리는 졸업여행을 가는 학생이 모두 20여 명 밖에 되지 않아(당시 동기생이 28명이었음)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었던 터에 꽤히 동의해 함께 떠나기로 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은 간호학과에서는 洪麗信교수님, 상대에서는 吳相洛교수님, 그리고 체육과목을 담당하셨던 김성수교수님이 동행하셨다. 1백여 명의 사람이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도 몇 사람은 앉아서 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탄 버스에만 타려고 떠날 때부터 자리경쟁이 치열해 우리를 즐겁게 했다. 필자는 사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남학생은 군대 다녀온 후 복학한 학생을 OB(Old Boy), 군대 다녀오지 않고 학사과정을 계속하는 학생을 YB(Young Boy)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 OB들이 주로 여학생 버스에 손님이 되고 YB들은 점잖게(?) 물려서곤 했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아저씨 같은 OB가 타지 말고 YB를 타게 하라고 중간중간 설 적마다 나를 사자로 보내려고 애를 먹이곤 했었다.

3박4일을 설악산, 경포대, 낙산을 거쳐 동해안을 여행한 재미는 고등학교 졸업여행시 담임의 인솔아래 줄서서 구경했을 때와 또 다른 기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더구나 이성적 감정까지 포화상태가 되었으니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풋풋한 젊음을 만끽한 시절이었으리라. 그렇게 싱그럽게 익은 정서는 이성을 대하는 자세로 건전하게 성숙되었으리라 고 생각된다.

여행을 다녀온 후 소위 애프터 미팅은 또 한번 함춘사를 떠들썩하게 했고, 기숙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면 황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방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를 찾아 이 방 저 방의 문이 활짝 열리고, 웃음의 주인공은 곧 미팅 소집령을 내린다. 워낙 학생수가 많으니 미팅의 장소와 인원의 배치도 함께 전달된다. 그리고 부산하게 원남 다방팀, 대학 다방팀, 학림 다방팀으로 나뉘어 끼리끼리 나가면, 남학생들은 벌써 중앙동 상대 캠퍼스에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얹전히 앉아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감동시키곤 했다.

먼저 만남의 이유를 누군가가 구차하게 꺼내면 그때야 비로소 여기저기서 사진을 꺼내고 설명하는 소동을 시작한다. 사진을 빙자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집단 미팅은 곧 개인 미팅으로 분산 소개되어 여행의 독후감을 써 내려가듯 감정의 연결고리로 역사를 만들고, 몇 달이 지나서야 한 두건의 로맨스만 남은 채 나머지 학생들은 썰물, 밀물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의 맑고 깨끗하면서 단단한 모래사장처럼 한결 더 성숙한 성인으로 진입되어 갔다.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졸업여행을 좋은 경험과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제는 많이 유행하지는 않지만 개인적 「중매」의 만남, 결혼이 한 때 힘있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기업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학생시절의 졸업여행과 같은 만남과 낭만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무릇 대학생들은 지식을 연마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인격을 닦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순수하고 고고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설악산에서 동기들과 함께(앞줄 우로부터 네번째 필자).

2002년 壬午年 「신년교례회」

우수지부 및 유공동문 표창 金회장 “感動의 해로 만듭시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월 19일 정오 신라호텔 영빈관에 머달드룸에서 白樂院·白文基·姜信浩고문,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모교 李鉉求부총장, 鄭正佶대학원장 등 각계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올해는 뛰어난 선수들의 묘기, 현란한 드리블, 강력한 슈팅이 펼쳐지는 월드컵 대회와 公明正大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크고 작은 선거를 통해 感動을 느낄 수 있는 한해』라며 『파나는 노력과 인내, 기다림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感動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李鉉求부총장은 『올해에도 모교는 대학 및 교육의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21세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작년 한해동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크게 공헌한 지부 및 기·과 동창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방지부 부문에 전북지부(회장 柳仁相), 해외지부 부문에 중국 북경지부(회장 金東震)·상해지부(회장 鄭聖在), 직장지부 부문에 한국도로공사지부(회장 金英雄)가 각각 선정됐으며, 기·과 동창회로는 화학과동창회(회장 金秀子)와齒佛會(회장 李在一)가 표창을 받았다.

또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지방지부 회장을 역임한 池憲澤(치대)·陸寶根(자연대)·金秀哲(보대원)·朴寬用(국가정책과정)·金閔鍾(관악무역인회)·金英昊(제주지부)·徐德圭(대구·경북지부)·權哲珍(진주지부)·李景宰(마산지부)동문과 동창

회보 상임논설위원 겸 동창회 운영위원으로 봉직해온 金哲洙·朴世熙·崔靑林·李炯均·安國正·金仁圭·朴聖姬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시상식 후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모교 權彞赫·趙完圭전임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佶대학원장이 다함께 힘찬 새해를 기원하며 시루떡을 절단했다.

이어 林光洙수석부회장이 건배사를 통해 『박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말의 해인 2002년은 국민 모두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도전과 개혁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 참된 개혁자로 함께 뛰어가자』고 제의했다.

또한 모교 전기공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Sinfonietta」단원들의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각계 동문을 대표해 본회 姜信浩고문, 朴晟容부회장, 미대동창회 李信子회장, 상대동창회 高炳佑회장, 모교 權彞赫전임총장, 鄭正佶대학원장, 영동지부 姜奎錫회장 등이 새해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모교 성악과 尹賢珠(71년 音大卒)교수가 南芝妍(94년 音大卒)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옛날은 가고 없어도」라는 가곡과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데마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은 열리고」를 선사,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 갈채를 받았다.

(表)



우수지부 및 기·과 동창회 대표에게 공로패 전달.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 회장을 역임한 유공동문 표창.



동창회보 상임논설위원 겸 동창회 운영위원 표창.



힘찬 새해를 기원하며 시루떡 절단.

미술작품

朴賢洛 作



「술·바람」, 한지 먹 갈대, 138×172cm, 2001.

◆작가 약력◆

- 87년 모교 미대 동양화과 졸업
- 93년 제16회 중앙미술대전 회화부문 최우수상
- 93~96년 한·중 미술교류전
- 94년 모교 대학원 졸업
- 96~2001년 개인전 3회
- 97년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과 모색전
- 98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한국현대미술전
- 99년 '99 국제화 지원작가 공모전 우수작가 선정, 한국화 어제와 오늘, Seoul Art Fair-11인 특별전, NICA TOKYO-한국 우수작가 9인 특별전
- 2000년 서울대학교와 새천년, 수목화-새천년의 오늘전
- 현재 서울대, 성신여대, 계원예고 출강

壬午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5일 (金)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2년 3월 15일 (金) 오후 6시 30분

◆장 소: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안 건: ①신임회원 환영

②2001년도 결산 및 2002년 사업계획 보고

③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④동창회 제19대 신임 회장, 회장단, 감사 선임

⑤기타 안건 심의

◆회 비: 2만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총회 상기 안건을 사전 협의, 의견 조율을 위한 상임이사회는 2월중 별도 소집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필라델피아 지부

77년 창립... 후배 유학생 위한 장학사업 펼쳐

글: 朱基睦(75년 獸醫大卒)총무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어로 형제애를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지부 역시 형제애를 능가하는 동문애로 타 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미합중국이 탄생된 지역으로, 뉴욕에서 남쪽으로 1백60km, 수도인 워싱턴에서 2백40km 북쪽인 펜실바니아주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지노로 유명한 아틀란틱시티가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1백55만명의 미국 제5대 도시이다.

1776년 독립선언 서명, 1789년 헌법 제정으로 필라델피아는 美建국의 본 무

대가 되었고, 같은 해 미합중국 13개 주 최초로 연방회의를 개최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했다. 이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 Liberty Hall은 필라델피아의 명승고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Arts Museum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교육의 도시이기도 한 이 곳에는 아이비리그의 명문사립대인 펜실바니아대와 Temple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Villanova University가 있으며, 작지만 정평이 나있는 Swarthmore College,

Bryn Mawr College, Haverford College 등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다.

한국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필라델피아에는 남부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 일부를 포함해 7만여 명의 한인교포가 살고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조국독립을 위하여 헌신·활동하신 松齋 徐載弼박사의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국 사람이 더욱 큰 것 같다.

필라델피아 지부는 1977년, 당시 펜실바니아대에서 수학교수로 계시던 林德相(54년 文理大卒)동문이 태동시켜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姜英培(63년 獸醫大卒)동문이 16대 회장을 맡아 열성적으로 동창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2001년도 지부 주소록에는 2백2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문 대다수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성공한 이들이 많다. 특히 집행부인 회장단을 필두로 이사회 제도를 적극 도입, 90명에 이르는 이사들이 필라델피아 지부를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동창회 활동을 살펴보면 13대 崔炫太(69년 文理大卒)회장이 주소록 발간 및 동창회 회칙을 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14대 鄭惠準(67년 商大卒)회장은 「New Millenium 동문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 열띤 호응을 받

았다. 또 美 제퍼슨 의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15대 李惠媛(61년 醫大卒)회장은 여러 차례 교양세미나를 개최하며 문예지 「필라춘추」 및 주소록을 발간했다. 특히 李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의 대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함춘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많은 동문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밖에 현 姜英培회장은 모교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골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그리고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열어 매년 1백여 명 이상의 동문이 참석해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지부 동창회와 마찬가지로 젊은 후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걱정도 되지만 조국의 미래이자 금지인 서울대가 발전하는 한 필라델피아 지부 또한 영원하리라 믿는다.



姜英培 회장



2001년 9월에 개최한 이사회.



식품공학과 동창회

상임·기별·지역 간사 뒤 탄탄한 연락망 구축

글: 金榮奭(90년 農大卒)편집간사



洪德杓 회장

지난 1967년 12월 14일 창설된 식품공학과는 1968년 1회 신입생 20명을 선발했다. 당시 모교 교수로 계시던 金浩植·金載勗(50년 農大卒)·曹惠鉉(50년 農大卒)·李瑞來(55년 農大卒)·李啓瑚(56년 農大卒)·全在根(62년 農大卒)동문이 학과를 처음 맡았다. 매년 18명, 많게는 53명까지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 현재 9백79명의 학사 졸업생, 3백31명의 석사 졸업생과 51명의 박사 졸업생을 양성한 중견 학과로 성장했다.

현재 학사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이 1~10회 졸업생은 17.6%, 11~20회 졸업생 약 31.6%, 그리고 21~30회 졸업생은 무려 39.5%나 돼 점점 대학원 중심의 학문연구중심 학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한 동문 가운데 약 59.8%는 기업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0%인 93명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14%는 연구소 및 교육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4% 정도는 정부기관에

서 활약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대다수가 제일제당, 롯데, 해태, 농심, 동양제과, 두산, 하이트, LG화학, 삼양제넥스, 빙그레, 대상, 동서식품 등 국내 유수의 식품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동양제과에서 근무하는 姜炳錫(74년 農大卒)동문이 철강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2000년 생명공학연구소의 吳太廣(78년 農大卒)동문이, 2001년 포항공대 吳秉夏(83년 農大卒)교수가 과학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우리 나라 식품산업 현장과 식품 및 생명공학의 학문적 연구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식품공학과동창회는 1985년 1회 졸업생 高榮奭(72년 農大卒·덕성여대 교수)동문을 초대회장으로,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회장단은 상임간사와 기별간사 그리고 부산·광주·대전에는 지역간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회장으로는 朴尙基(73년 農大卒)·尹學柱(73년 農大卒)·姜炳錫·朴龍浩(75년 農大卒)·金錫信(78년 農大卒)·徐南錫(77년 農大卒)동문이 역임했으며, 현재 洪德杓(78년 農大卒)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92년 12월 10일 제1회 식품공학 동문 송년의 밤을 시작으로, 매년 12월초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총회를 겸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동문 결속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모교 소식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근황 및 기업에 대한 소개도 아울러 듣게 된다.

1992년부터 매년 동창회 소식지 「식공 뉴스」를 2~4회 발행해 동문들에게 더 알찬 정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동창회 홈페이지(food.snu.ac.kr)를 개설, 누구나 쉽게 동창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문들의 e-mail주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탄탄한 연락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봄에는 재학생 주관으로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재학생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가을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서울대가 족 친목 등산대회에 참가해 동문 및 동문 가족과 함께 가을 야유회를 즐기고 있다.

모교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1996년 농대 개교 90주년 기념사업비로 3백만원의 출연한 바 있으며, 1997년 학과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동문 주소록을 새로 발간했다. 또 은사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정년을 맞으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송년회 때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매년 2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모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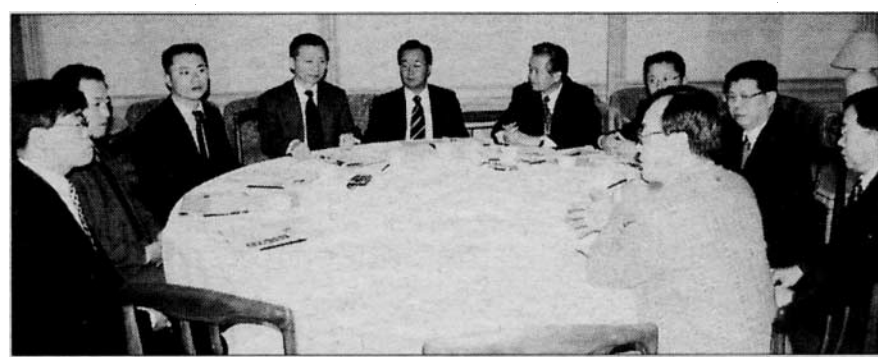


2001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

대기업
고용
만남
Meet

미래에 대한 비전·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 대졸자 중심으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11월 말 통계를 보면 모교 졸업예정자의 순수취업률이 27% 정도로 모교 또한 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취업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학교 관계자를 통해 장기 실업의 해결방안과 모교 졸업예정자 또는 재취업을 원하는 동문들이 직업 선택시 고려할 점 등을 들어보았다.



사회=朴時龍(75년 農大卒·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참 석 자

- 張錫敏(72년 敎大院卒)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李準源(75년 工大卒)INI STEEL(주) 상무이사
- 李源德(75년 商大卒)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李載甲(84년 行大院卒)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 黃仁泰(86년 大學院卒) 매경휴스닥 대표이사
- 李鎭宇(90년 法大卒)ITP윌드와이드 코리아 대표
- 安勝涉(98년 社會大卒) 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 李敦碩 모교 학생처 복지과 사무관

사 회: 최근 취업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 동문들과 졸업을 앞둔 모교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德: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과 실업 전반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학습망을 잘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張錫敏: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黃仁泰: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사회학습망을 담당하고 있는 매경휴스닥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李鎭宇: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ITP윌드와이드 코리아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헤드헌트 업체로서 외국계 회사와 우리 나라 회사에 임원진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準源: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INI STEEL은 건설 구조용 철강제품을 만드는 전기로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安勝涉: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연합뉴스에서 산업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채용 분야이어서 이에

관한 문제점을 산업과 연관시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載甲: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노동부에서 우리 나라 고용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李敦碩: 서울대 학생처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취업정보실을 운영하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회: IMF 이후에 고용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죠.

李源德: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될 정도로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대졸자를 비롯한 신규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그만큼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이 평균 25%이고 전문대의 경우 조금 사정이 나아서 44%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여 어렵사리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죠.

李源德: 현재 대졸자들이 고교 희망하는 Decent work 즉 좋은 일자리가 29만개나 줄었어 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대학졸

세 일즈 등 다양한 직업세계 알려야 대학, 기업이 원하는 인력 공급 못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총 50명 정도인데 그 중에 박사급 인력이 30명이며, 노동시장관련 연구자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李準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네요.

李源德: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HRD 즉 인적자원개발팀을 갖추어 기업의 관점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키워드는 「사회학습망 구축」입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평생교육을 충실히 받기 위해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학습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사 회: 실업자 중 15~25세까지를 청년실업자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 실업자가 7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34만 명이 청년실업자로 집계

업시점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정지 채용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채용을 해요. 신규 대졸자가 취업하려면 바늘구멍이요.

張錫敏: 현재 인문계 고등학생의 80%, 실업계 고등학생의 4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졸자 공급과잉에 의한 장기 실업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조절되고 이에 따라 교육체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데로 이루어진 교육체제가 공급과잉을 야기했습니다.

사 회: 이런 장기 실업을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李源德: 취업 희망자 본인이 대학 1학년 때부터 노동시장에서 Market Value(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열심히 해야하며,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실직자로 전락할

이 부족하니 대학생들을 그런 곳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런 곳에 가서 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곳에 보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워 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고용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李載甲과장이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李載甲: 현재 고용정책과에서는 교육부·학교와 함께 직업에 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각 대학별 취업률을 공개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올바른 학과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사 회: 대학졸업자를 중심으

로 청년실업자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빨리 이런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李鎭宇: 사실 직업의 세계가 다양하거든요. 직업의 다양성을 몰라서 실업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일즈와 같은 것도 중요한 Job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취업희망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그런 쪽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CEO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세일즈라는 겁니다.

安勝涉: 대학 인프라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이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이 직업교육에 맞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李載甲: 많은 취업희망자들이 편중된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으로 가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구조 모두가 대기업이나 IT분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력이 High Class Job과 Low Class Job 모두를 충족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張錫敏: 중소기업이 떠받치지 않은 대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업구조에서 하부구조가 불안하면 대기업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으로도 우리 모교 학생들이 진출해야 합니다.

李準源: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공급과잉으로 볼 수 있지



朴時龍



李源德



張錫敏



李準源



李載甲

만 미시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해 공급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 회 :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문을 활짝 열어 졸업생 수가 늘어난 반면 일자리는 과거 고도성장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반영되지 못해 기업입장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학벌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다른 잠재능력을 중요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이 입사 시험을 볼 때,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李準源 :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학벌 같은 것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자질과 잠재력만 충분하다면 학벌은 보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좋아하는 인재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변화에 즉각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비전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黃仁泰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켜주다 보니 실제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변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좋은 대비변수가 학벌입니다.

李鎭宇 :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많이 만나는 헤드헌터 입장에서 볼 때 취업희망자 본인의 강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점을 잘 알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한두 가지 잘하는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취업이 됩니다.

李載甲 : 구직희망자들이 취업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사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취업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요. 또 하나 간과할



安勝涉



李鎭宇



黃仁泰



李載甲

수 없는 것은 취업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돈 안들이고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나, 노동부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일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모든 정보를 찾는다면 취

이 원하는 직장에 거의 진출했기 때문에 취업 분야에 대한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이 달라져 취업대란 대책을 서울대도 세워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관한 전문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며, 취업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박람회 개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사 회 : 모교 재학생과 동문

인, 약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아 학계로 진출해야 성공한다는 몇 가지 단순한 성공방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일류대를 나와서 아주 유명한 보험회사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교 학생들도 도전적인 정신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張錫敏 : 모교 교육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직장생활에 관한 정보를

이 원하는 양질의 인력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黃仁泰 : 모교가 취업에 관련한 예산확보율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체 예산의 1% 이상은 취업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安勝涉 : 학교 당국이 채용정보 전문가나 관계자를 모셔다가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요령·이력서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력서를 쓰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李載甲 : 학교가 어떻게 취업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중에 5개월이 방학이요, 축제다 뭐다 해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교수와 학생이 대면해서 수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야말로 멍하니 있다가 4학년 졸업 때가 돌아오면 늦은 거죠.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 : 이 시간이 모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정책당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능력시대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야 될 점도 많겠지만 직업을 갖고자 희망하는 이들이 준비를 더욱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연수·전담교수 배치 필요하다

취업 정보제공 위한 예산 확보 시급

업능력을 키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安勝涉 : 현재의 대기업 채용관행이 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의 인사관행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에서 성장한 인재를 대기업은 인정하지 않는 예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취업희망자가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 또한 개방적인 채용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얼마 전 모교 경영대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 취업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골라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취업실상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載甲 : 그동안 취업정보실 하나만 운영하는 정도로 취업관리에 대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가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생들

들에게 취업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李載甲 : 사립대 같은 경우 학생들의 취업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특별 자금을 배정해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보내고 전담 교수도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은 거의 다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모교도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源德 : 모교 졸업생들 모두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계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학부 졸업 후 직장 생활에 들어가는 데, 직장 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프 라이드만 길러주었지, 직장인으로서는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죠.

李鎭宇 :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성공을 위한 방정식이라는 것이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것 같아요. 고시에 합격하든지, 언론

제공해주고 Career Success 전략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만심만 가득 찬 서울대생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꼭 고시만 고집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李準源 : 물건이 안 팔릴 적에 고객을 타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인력소비가 적다고 기업을 타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급에 있습니다. 모교도 직업교육을 보강해 기업



한국언론재단 박紀正이사장

“서울대 나온 것 자체가 무기 될 수 없어”

올해 초 한국언론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한 박紀正(68년 文理大卒)동문을 지난 1월 21일 만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취임한 지 20일이 넘었는데, 소감은.

『동아일보에서 33년간 온갖 일을 경험했지만 막상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사실 긴장이 되네요. 앞으로 우리 재단의 설립 취지인 선진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다매체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金文元(65년 文理大卒)동문, 2대 金容述(66년 文理大卒)동문과는 서로 막역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이 두 분의 뒤를 이어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조금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터뷰 자체도 너무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동문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이후 보름 동안 업무현황을 走馬看山식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좋은 나쁜은 무조건 실시해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그동안 재단이 이룬 성과와 미비점을 찾는다면.

『지난 1999년 1월 프레스센터,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통합된 것이 한국언론재단입니다. 그동안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수·세미나·토론회·포럼, 다양한 연구 저술 사업 등을 펼쳐왔으며, 언론인에게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행대로 해왔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 전직 언론인에 대한 재취업, 교육 등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전직 언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 되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의 원칙은 퇴직 언론인에 대해서도 퇴임 이후 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배들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지방 언론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앙에 있는 언론사보다 지방 언론사의 수가 워낙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현황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올해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선 등 큰 행사들이 있어 공정 보도 등 언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텐데.

『우리 나라 언론사는 정치사와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함께 이어져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언론의 소위 공정보도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요. 올해 역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공정보도도 그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으로 공정보도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공정보도는 언론

사 자체의 보도자세나 방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로 강의도 하셨는데.

『지난 2001학년도 2학기에 2학점이 배당된 강의를 했는데, 역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긴 했지만 제가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공부한 상태이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 교육계에서 봉직하고 계신 분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 白濃언론회장을 역임하셨는데.

『白濃은 중등학교 설립자이며, 서울대 3대 총장을 역임한 崔奎東박사님의 아호입니다. 백농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중등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을 창립하게 된 거죠. 지금은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머니투데이 朴武(71년 文理大卒)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 동문 선후배에게 한 말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문 특히 선배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위 동창의식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졌으면 합니다. 또 과거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동창의식이 희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져 보입니다. 아마 동창회보의 힘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서울대를 나온 것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문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끊임없는 자기 연마가 절실했어요.



과거 신문사에 지원하는 후배들의 영어 실력이 중상위 정도였다고 보면, 지금은 얼굴을 보지 않고 발음만 들어보면 외국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그만큼 지식사회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서울대 졸업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汀山 박紀正이사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사회부장, 부국장, 논설위원, 동경지사장, 심의실장, 편집국장, 월드컵대책본부장, 문화센터 사장 등을 지냈으며, 관훈클럽 총무,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 본보 논설위원, 한국언론재단 감사,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康惠淑(68년 藥大卒)여사와 아들 智赫(2002년 농생대 식품공학과 졸업예정)군과 딸 智鮮양을 두었다. (變)

2면 「동문칼럼」에 이어

어느 대학에서나 개혁 시기에는 기존의 인적·물리적 자원을 베이스로 개혁이 시작되지만 가장 저항이 강하고 움직이기 힘든 집단이 대학 교수라는 점이다. ⑥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업적을 학계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는 전공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문 과학계 대학 교수는 학술서적, 편저(編著), 신문·잡지, 전문 연구 논문지(journal) 형태로, 사회 과학계 대학 교수는 전문 학술서적, 정기 전문 연구지(journal), 신문·잡지 기사 형태로, 공학계 대학 교수는 전문 학술논문, 학회 발표, 신문·잡지 기사로, 예술계 대학 교수는 공연회·전시회, 비디오필름 형태로 연구업적을 학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⑦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대학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의 대우(신분)나 시설, 설비, 교육, 연구환경에 불만이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 내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수 자신이 하고 있

는 교육, 연구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는 대학 교수가 꽤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대학 교수라는 자화상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⑧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학 교육 개혁 모형은 주로 미국형 모델을 참고하여 추진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형 모델이 한국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보다는 대학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아이디어 제공자, 관련 교수의 성향이 주로 미국에서 훈련 받은 두뇌 중심집단의 문화이식적인 가치관과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⑨종신 재직권(tenure)과 관련된 교수의 신분을 안정형과 경쟁형으로 구분·제시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경쟁형의 젊은 교수가 안정형의 젊은 교수에 비해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업적이나 성과도 안정형보다 경쟁형에서 더 높았다.

경쟁형의 교수는 40대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며, 안정된 지위를 획득하는 시기인 50대가 되면 학술논문의 수, 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횟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대학 교수에게도 전성기가 있는 것 같다.

위에서의 설명과 관련하여 특기할 중요한 사항은 학술논문의 수와 학회에서 발표 횟수는 경쟁형의 교수편이 일관되게 많고 단행본이나 공·편저류의 학술서적 수는 역으로 안정형의 교수가 일관성 있게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형은 연구성과를 빨리 공표하는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학술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며, 안정형에서는 장·단기 연구결과 및 교수로서의 경험이 농축되고 여과되어 상호 인접 분야와의 접목이나 조망적·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리된 수준에서 제시 형태로 공표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⑩연구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환경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즉 소속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에 대해서 대학 교수의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속 대학의 지적 분위기가 좋다고 많은 교수가 반응하고 있다. ⑪교육활동보다는 연구활동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교수가 많으며 대학 교수의 대부분이 소속 조직(학교)보다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강하다. ⑫대학 교수의 약 75%가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휘하는 것이 교수의 자질 평가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연구업적을 창출하는 것이 종신 재직권 획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⑬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이나 학술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반감을 제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등교육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개입을 기대하는 양면 가치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⑭대학 교수의 학문적 생산성이나 사기는 교수 개인의 속성이나 자질, 성격, 훈련 배경, 전공 분야뿐 아니라 소속 대학의 근무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바가 크다. ⑮근무 조건과 관련하여 대학 교수가 직무 수행상에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일에 대한 요구, 업무에 대한 자유재량권, 업무에 대한 지원이 그것들인데, 이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중재, 원인, 종속변인인지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것이다.

청계연구소 孫世一회장

월간 조선에 「李承晩과 金九」 평전 연재

“20년 정치생활이 많은 도움 됐어요”

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과제일 것이다. 현대사의 정치인으로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인물, 李承晩 前대통령과 金九선생. 그들을 빼놓고 현대사를 말하기란 힘들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李承晩과 金九를 재조명하고 있는 孫世一(59년 文理大卒)동문을 만나보았다.

언론인으로서 11·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孫동문은 현재 월간 조선에 「李承晩과 金九」라는 평전을 연재하고 있다. 孫동문은 사상계, 월간 신동아 편집장과 동아일보 논설위원, 민한당, 민주당, 국민회의 정책의장, 원내총무 등의 요직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청계연구소 회장과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인권과 민족주의」, 「한국전쟁사」 등이 있다.

평전 「李承晩과 金九」는 30년 전에 발표했던 저서를 보완하여 다시 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Bullock의 「히틀러와 스탈린」(1992)과

같은 「A와 B」라는 형식의 비교 평전장르의 글이며, 1969년 「신동아」誌에 띄엄띄엄 나누어 발표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당시 그는 처음부터 「李承晩과 金九」를 쓰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동아일보에서 3·1운동 6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논문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지도 체계」라는 논문을 실으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자료들과 내용을 바탕으로 「李承晩과 金九」를 쓰게 된 것.

그러나 저서 「李承晩과 金九」는 단순히 부수적인 산물만은 아니다. 李承晩과 金九를 재조명할 수 있게된 밑바탕에는 시대의 변화라는 조류도 깔려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 예전에 공개할 수 없었던 「李承晩과 金九」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梨花莊에 소장되어 있던 李承晩 문서, 그밖에 미국과 舊소련의 외교문서 등의 기초자료가 공개되었고, 여기에 그가 중학교 때부터 백범일지를 밤새워 읽을 정도의 열정과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李承晩과 金九」의 평전이 쓰여질 수 있었다.

이 책은 총 3부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3·1운동까지, 2부는 임시정부 시작 당시까지, 3부는 金九가 죽을 당시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그가 「李承晩과 金九」를 집필하면서 쓴 원고 분량만 해도 1만2천장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집필하다 보면 역시 자료를 찾는 것이 큰 문제이다. 孫동문 역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책들을 구입하기 위해 그는

외국에 자주 나가게 되었는데, 1965년 미국에서 세계 언론인 초청 프로젝트에 참가할 당시, 고서점을 찾아가 「조선」이라는 책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자 세관에서 압수 당한 것이다. 조선이라는 문구가 북한에서 저술된 책으로 오해를 샀던 것이다. 1960년대 당시 반공이 가장 큰 이슈였던 시대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였다.

학창시절 정치학도였지만 문학적인 기질을 지닌 그는 盧在鳳, 申東濤, 金聖佑동문들과 함께 「政文會」라는 서클을 조직해 매주 토요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상토론을 즐겼으며, 등사관을 이용해 인쇄한 서로의 글을 나누어 보면서 문학과 사상을 교류하곤 했다.

이를 통해 孫동문은 「민주주의」라는 시를 발표, 억압된 정치 속에 그의 신념을 나타낸 적도 있었다. 그는 또 「政文會」가 4·19의 시발점이 되었을 정도로, 그 활동이 단순한 문학서를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외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회보와 문리대 신문을 창간, 학교와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언론인으로서 항상 정치의식을 담고 있던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것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던 10·26 당시 신민당 총재 요청으로 특별보좌역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일 본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한 그는 3선의 원을 거쳐 이제는 20년 정치생활을 마감하고 지구당 위원장 자리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정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라이프 워크로 평전 「李承晩과 金九」의 집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孫동문은 「그동안 정치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다보니 같은 곳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李承晩과 金九의 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한일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것 등의 활발한 정치활동으로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전근대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孫동문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현대사 중심의 계간지를 낼 예정이며, 능력이 허락된다면 철학서를 쓰고 싶다고 그의 소망을 밝혔다.

또 그는 「난 잘못된 글을 못 봅니다. 바른 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법 틀리는 것도 용납 못하지요. 이것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인 것 같다」며 저널리스트로서 자신의 철칙을 피력했다.

(亨)





⑥7대경기계기술(주)

50여 국가에 「국산」 석유화학 플랜트 공급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시장 확대

과학 및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 장기를 인간의 신체에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DNA 유전자 지도를 이용, 희귀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 예방하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인간은 자연에서 생성된 석유 등의 자원으로 의복,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며 끊임없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인간 문명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었던 환경은 점차 파괴되면서 역으로 인간을 위협하는데 이르렀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을 비롯해 인간의 욕심과 비양심으로 야기된 광우병, 세균성 이질 등이 최근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듯 눈부신 산업 발전 뒤에 인간은 엄청난 대가를 떠안게 된 것이다.

개인 및 사회 곳곳에서 환경 복원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 기업 가운데 정작 환경과 함께 동화되어 그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환경산업이라는 분야에 도전장을 던진 기업이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를 국산기술로 생산하며 세계적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는 대경기계기술(주)(회장 金石基·64년工大卒)이 바로 그 기업이다.

1981년 울산에 공장을 설립한 대경기계기술(dkme.com)은 현재 여수, 파주 등 4곳에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경인다중공업(주)을 추가로 설립, 석유화학 장치 기기인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에 있어



金石基 회장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1천8백8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대경기계기술은 석유화학 플랜트 생산뿐만 아니라 복합화력발전용 보일러 및 산업용 보일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룰 법 한데 환경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김회장의 입장은 다르다.

『20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조직과 회사, 산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체는 사회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뛰어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이윤도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셈이죠』

대경기계기술은 10년 이상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환경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우수한 연구인력

을 과감히 스카우트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대경기계기술은 「대경종합환경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하·폐수처리에 바실러스균을 이용, 유해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B3 SYSTEM(Bio Best Bacillus System)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제46호로 지정받아 울산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등에 공급하여 악취없는 맑은 물을 방류하고 있다.

또 유온감압식 건조장치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축산 및 도축장 폐기물, 분뇨 및 하·폐수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농수산물쓰레기, 산업용 슬러지, 식품가공폐기물 등을 사료 및 비료화하는 프로텍스 시스템을 개발해 각 지방단체 및 업체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축산폐수 등에 전기분해공법을 이용, 농약과 유해성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도 무공해 채

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이온수기를 개발해 또 한번 업계를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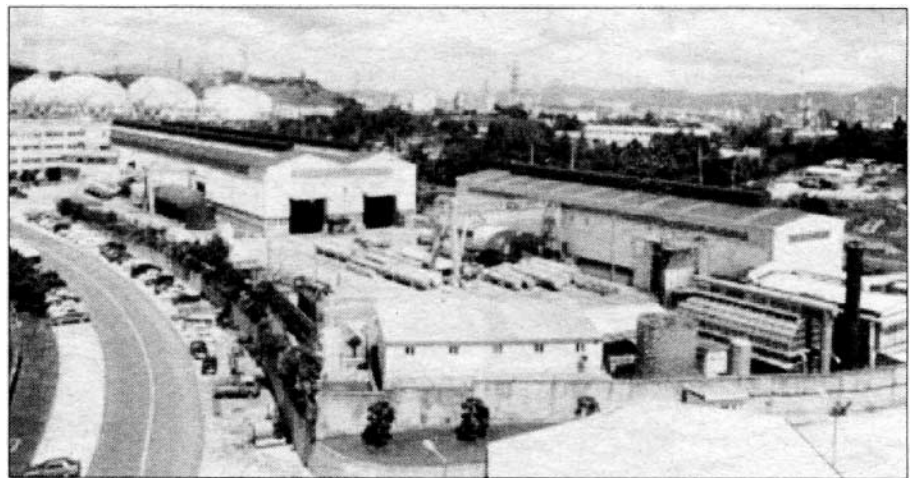
한편 지난 한해는 대경기계기술에 경사가 끊이지 않았던 해이다. 다름 아닌 제38회 무역의 날에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와 더불어 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출유공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부터 석유화학 장치플랜트의 국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경기계기술은 직접 외국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심, 1998년 발전소 설비라는 새로운 분야를 가지고 미국시장을 공략해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1천만달러 이상의 폐열회수 보일러(에너지 효율을 30%이상 향상) 및 증기발생기를 수주하고 있다.

현재 대경기계기술이 생산한 플랜트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의 유럽국가, 중동지역의 산유국 등 50여 개 나라에 공급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외국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대경기계기술이 생산하는 각종 플랜트는 국내 자체 기술로,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는 효도 상품인 것이다.

대경기계기술을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김회장과 지금까지 단 한번의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않은 임직원 모두의 땀과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김회장은 『회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믿자, 서로 존경하자, 서로 참자」라는 사훈 아래 20년 동안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表)



울산시 남구 부곡동에 위치한 본사 및 제1공장 전경.



학술원 李鎬汪회장

두 아들·두 며느리 모두 모교 출신 전공 달라도 교육자로서 실력 발휘

어디서든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듣기란 힘든 일이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직업과 관련해 열이면 열 군데에서 「의사가 될 팔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접고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지 라는 남모름 고민도 생길 것이다. 이렇듯 어릴 적부터 의사의 운(?)을 타고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李鎬汪(54년 醫大卒)동문이다.

의할아버지가 한의사였던 관계로 李동문의 모친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셨다고 한다. 게다가 李동문에게는 그러한 기질이 다분했으며,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의사가 될 운명이라는 얘기를 들곤 했었다. 하지만 李동문의 어릴 적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다. 각종 글짓기대회 수상과 국어 및 영어 과목은 거의 눈감고도 만점을 받는 등 자유로운 문필가의 모습을 상상하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또 가족 모두 개성이 강해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달랐지만, 「음악」만큼은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큰형이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칠 때면 부친이 달려와 남자가 악기를 다루서 뭐하겠냐며 가혹한 체벌을 가할 때가 종종 있어 李동문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작곡가의 길을 꿈꿔보기도 했다고.

하지만 李동문은 순리대로 부모의 뜻에 따라 모교 의대에 입학했다. 당시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 말라리아, 결핵, 천연두 등의 수많은 전염병이 나돌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李동문은 내과 의사를 하면서 전염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전염병을 다루는 미생물학 분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모교에서 조교생활을 하던 李동문은



뒷줄 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李成一·南基善동문 내외, 韓周娟·李根東門 내외, 金銀淑여사, 李鎬汪동문.

뜻밖에도 美 미네소타대에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안았다. 처음에는 석사 과정만 이수할 목적으로 유학을 갔지만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어느덧 자신이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내과 의사의 꿈을 접고 미생물학, 특히 바이러스학을 국내 최초로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황폐화되고 암흑같던 우리 나라에 들끓고 있던 가장 무서운 병이 쥐로 인해 옮겨지는 유행성출혈열이었다. 미군 병사 2천5백여 명이 이 병에 걸려 美 연구원만 3백명 이상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

李동문과 같은 의사의 길을 걸을 법도 하지만, 李동문의 장남 李成一(85년 工大卒·성균관대 교수)동문과 차남 李根(86년 社會大卒·모교 교수)동문은 모두 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 양성에 온 정성을 바치고 있다.

게다가 큰며느리 南基善(85년 家政大卒)동문과 작은며느리 韓周娟(87년 師大卒)동문 역시 대학강단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교수의 꿈을 키우고 있어, 가족 중에 李鎬汪동문의 뒤를 잇는 의학자는 없지만 다섯 동문 전원이 교수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울러 장남 내외 및 차남 내외가 美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李鎬汪동문의 업적 못지 않게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李鎬汪동문의 두 아들 역시 부친의 피를 물려받아 음악에 다재다능한 소유자들.

모두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등에 능해 李根東門은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셨던 예술평론가 진학을 권유받기도 했으며, 李成一동문은 지금도 취미로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특히 장남 李成一동문은 南基善동문을 모교 방송부에서 만나 결혼에 성공한 캠퍼스 커플이다. 음악 해설가로, 작곡가로 당시 모교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李成一동문은 교회 음악에 남달리 조예가 깊은 南基善동문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 차남 李根東門과 韓周娟동문은 두 번의 인연이 맺어준 특별한 부부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던중 잠깐 한국에 들어온 李根東門은 우연히 선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의 부인 韓周娟동문이 맞선 상대자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지 李根東門은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6개월 뒤, 李根東門은 우연히 美 위스콘신대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던 중 유학을 온 韓周娟동문을 발견하고 유학생 활의 외로움과 고충을 나누며 지내다가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고 한다.

李鎬汪동문은 가족에 대해 『평생 학자로서 연구에만 매진하다보니 아이들을 키운 것은 모두 부인(金銀淑여사)의 몫이었다』며 『다행히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비록 내가 원하던 길과는 다른 분야를 택하긴 했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 만족해하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고 말한다.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탄생명과학재단을 운영하는 것 외에 李동문이 현재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학술원 일이다. 학자로서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가 바로 학술원 회장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表)



셋째야 잘 있거라, 여섯째 간다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교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 전에는 「자기」라고 부르던 호칭이 언제부터 이런 호칭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 기억으로 불과 10년이 안된 것 같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소위 「토크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편을 으레 오빠라고 호칭하는데 사회자나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 호칭에 대해서 고쳐줄 생각도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더니 요즘은 모든 젊은 부부의 호칭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얼마동안 오빠라고 부른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을 몇 명씩 낳고 수년을 살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연하의 남편에게도 아무 주저 없이 오빠라고 부르니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다. 어떻게 해서 남편이 오빠가 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도덕과 질서가 파괴된 세상이기엔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 깊숙이 자리한 근친상간의 본능인 Oedipus Complex가 작용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특하면 이혼을 잘하는 세대들이나

혈연관계인 것 같은 유대감이라도 만들어 놓아야만 부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기 때문인가?

언제까지 이런 호칭이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세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부부간의 호칭부터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남발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OO박사」, 「OO교수」라는 호칭이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서 박사라는 호칭이 붙었거나 대학의 전임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경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생판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일반화되다시피 불려지고 있다.

내 성이 「李씨」여서 가끔 「李박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형편없이 우스꽝스럽게 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이박사」로 불려지는 대표 개념은 관광버스에서 뽕짜를 매들리로 엮어서 아줌마부대에게 인기 절정에 있는 어느 트로트 가수의 호칭이라고 한다.

교수라는 호칭도 마찬가지다. 대학마다 교수 확보를 때문에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을 많이 위촉하고 있으니 교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되나 유행처럼 번지는 사회교육원이라는 데서 주부를 상대로 한 강좌만 맡아도 교수라고 호칭을 하니 이런 도무지 교권에 대한 형편없는 도전이다.

더욱이 기분 나쁜 것은 TV의 한 여성 프로그램에서 어느 사회교육원의 「OO교수」라고 소개되는 사람은 단골 메뉴처럼 나와서 콧소리를 내 가면서 가식 어린 얼굴 표정과 저질스러운 말장난으로 소위 인생 상담을 한다고 「남편을 대할 때는 이런 표정을 하고…」 등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교수라는 호칭을 그렇게 값싸게 부여하는가? 이제는 교수라는 직업이 학문의 대열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후진을 교육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직분이 아니라 대중 매체에 나와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웃기고 많이 알려지기만 하면 된단 말인가? 아니면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교수의 품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음은 애완견에 얹힌 웃지 못할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요즘 세태의 일면을 엿보기로 하자.

어느 시골의 시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왔단다. 그 노인이 기대하기

로는 자기가 집안의 어른이니 당연히 아들네 집에서 당신을 제일 받들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와서 며칠을 지내는데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것은 말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자기 아들이 대접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며느리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우선 순위 1위는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둘째로 대접받는 것은 손자였고 그 다음으로 애지중지하는 것은 강아지로 당당히 셋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불쌍하게도 자기 아들은 넷째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 다섯째로 인정받는 존재가 파출부였고 시아버지인 이 노인은 여섯째 정도로 밀려나고 있음을 알고 화가 나서 시골집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인이 집을 나서면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하는 말인즉, 「셋째(강아지)야! 잘 있거라. 여섯째(시아버지) 간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는 하나 요즘 세태를 풍자한 것 같아 씁쓸해지는 마음을 견잡을 수 없구나.

정부의 치매노인 대책 부재중

朴鍾圭(8기 EPHPM)양지요양병원 행정원장



현재 우리 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장남 혹은 다른 자녀들과 같이 보호와 존경을 받으면서 가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생활했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사회의 구조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부모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들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은 부자유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또는 효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만 가능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나라의 유교사상이나 경로사상이 그대로 발전 유지되어 자손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핵가족화의 경향과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로 인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가 증대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던 노인과 어린이에게 대한 부양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근래 노인 문제의 특성은 대부분 시골 출신으로서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왔던 계층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고학력의 사회적인 능력을 갖

춘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자 하는 층으로 두터워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8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우리 나라 인구의 5.4%인 2백40만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3백37만명으로 7.1%, 2020년에는 13.2%인 6백90만명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급진적 증가 및 발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노령화 추세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각각 4~8배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또한 그만큼 급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을 저하는 노인 인구율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노쇠현상이 심하거나 외병상태 또는 지체 부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할 고령 후기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조는 점차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감소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며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과 이 달을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같은 법정 기념일과

달을 지정하는 배경에는 나름의 뚜렷한 이유가 있음이 사실이다. 노인들이 인생의 활력을 느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든지, 사회적 관심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노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경의식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앞서 상기했듯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시책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아기결음마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보호대상 인원이 25만명에 노령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것이 고작 몇 만원이고, 35만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건강사업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양로시설이나 노인 전문병원의료서비스 확충도 요원하다.

특히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은 관절염, 요통, 위장질환 등의 고질적인 농부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평생동안 건강진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의 대책은 어떠한가. 20만에서 30만명에 다다른 이들 환자에 대한 시책은 어렵다 못해 아예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소 하나 제대로 없

는 유관기관과 정부를 뵈한다든지 우리들의 현실에 비판만을 느끼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필자는 작은 힘이지만 이 모든 뜻을 모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소재 8천여 평 부지에 2백50여 병상 규모인 아담한 병원을 건축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했으며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환자를 보호 하에 신경과, 정신과, 외과, 내과, 물리치료실, 중환자실, 사회사업과 및 상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 병원은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내원 환자 모두를 내 부모처럼 효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병원관계자를 독려하며 빠른 쾌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치료범위를 가족과 함께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풀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으며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의료기술 및 보건증진, 노인병의 사전 예방 및 치료, 사회봉사 실천, 노후대책의 방안을 연구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되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교소식

모교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 발대식 거행



모교 병원은 지난 1월 16일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단장: 成相哲교수)발대식을 거행했다.

분당 병원 개원준비단은 내년 상반기 개원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건물 및 시설 공사에 초점을 맞춰 온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추진본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력과 시스템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모교 朴容眩병원장을 비롯한 원내 교직원과 외부 건축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朴원장의 격려사와 成相哲개원준비단장의 인사말, 국립암센터 朴在甲원장의 초청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成단장은 인사말에서 분당 병원 건립에 애쓴 직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래간 동안 서울대 병원이 쌓아 온 명성과 최고의 인력, 의술을 바탕으로 삼아 또 하나의 최고병원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초청강의 연사로 나선 국립암센터 朴在甲원장은 「국립

암센터의 개원전략」이라는 주제로 병원 건립 과정과 개원 이후의 병원경영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1996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첫 삼을 뜬 분당 병원은 올해 11월에 준공, 2003년 상반기 개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성인병 및 노인성질환 특화센터 3백병상, 일반인 5백병상 등 총 8백 12병상을 갖추게 된다.

미술대학 학장에 金炳宗교수

부학장에 權寧傑교수 선임

모교는 지난 1월 1일자로 미술대학 학장에 동양화과 金炳宗교수를 선임했다.

조형연구소장을 겸직하게 된 金학장은 81년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동양화과 학과장, 미술대학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미술대학 부학장에 디자



金炳宗 학장

인학부 權寧傑(76년 美大卒)교수가 선임됐다.

공대 홍일점 교수 탄생

전기컴퓨터공학부 田華淑교수



최근 모교 공대에 홍일점 교수가 탄생했다. 지난 99년 모교 공대 기금교수로 부임한 田華淑

(83년 工大卒)교수(사진)가 지난 12월 31일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이로써 모교 공대는 첫 여성 교수였던 재료공학부 朴順子(54년 工大卒) 명예교수가 1998년 정년 퇴직한 이후 끊겼던 여성 교수 인맥을 4년 만에 다시 잇게 됐다.

田교수는 학부에 이어 모교 대학원에서 85년 석사학위, 89

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파로서 서강대, 이화여대, 한성대를 거쳐 모교에서 재직해왔다.

79학번 동기인 한국외국어대 전자공학부 鄭東根(83년 工大卒)교수가 남편이다.

박물관

유리원관필름 특별전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지난 1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대미술전시실에서 일제시대 우리 나라 생활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유리원관필름 1천3백여 점을 특별 전시한다.

유리원관필름은 유리판 위에 사진용 감광재료를 도포하여 만든 것이며, 이들 필름은 193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일본인 사회학자이며 민속학자인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한국의 민속을 조사하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기록되어 있는 생생한 장면들은 우리 나라 민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시물 내역: 1) 유리원관 사진 70여 점 - 생활과 무속에 관련된 1930년대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2) 유리원관필름 50여 점 - 다양한 내용의 유리원관필름 실물 전시, 3) 관련 자료 20점 - 1930년대 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

△기타: 1) 전시실 내 슬라이드부스 - 다양한 원관필름을 슬라이드를 통해 감상, 2) 전시실 내 유리원관필름 전시 부스 - 유리원관필름을 실물로 확인. (變)

재일교포 梁天植씨

사대 체육교육과에 65억 기증

지난 1월 29일 재일교포 梁天植(79세)씨가 한·일 월드컵을 맞아 스포츠를 통한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모교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65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증했다.

일본 고베시에 거주하고 있

는 梁씨는 10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부동산업으로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명동 로얄호텔의 공동창립 멤버이기도 한 梁씨는 미국 LA한인타운에 「코리아 타워

플라자」라는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

노환으로 병석에 있는 梁씨를 대신해 부인 張永曾씨와 장남 昌弘씨가 이날 기증식에 참석했다.

梁씨는 유도선수로 승승장구하다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막내아들의 꿈을 기려, 이번 기금을 모교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모교는 기부액 전체를 체육교육과의 장학금과 학술진흥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모교 소식 직접 보세요
<http://www.snu.ac.kr>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딱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들

金甲英 : 鄭昭盛(69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동문 부인



친정 쪽으로 여러 형제가 있으나 누구도 서울대를 진학하지 않았다.

큰오빠가 한양대를, 작은오빠가 고려대를 들어갔고 세 번째인 필자가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친정아버님께서는 나에게 서울대 사범대학 진학을 은근히 기대하셨다. 그러나 필자는 아버님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대를 가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버님의 기대를 깨뜨린 셈이었고 그래서 친정아버님은 매우 섭섭해하시는 눈치였다.

그러다가 필자는 서울대 문리대를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서울대 출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결혼 초기부터 나 자신은 물론이고 친정 쪽 여러 사람들은 나의 남편을 유심히, 조금은 남달리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깥양반은 수많은 서울대출신 중 한 사람이지만, 조금 유난스러운 데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서울대인답다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한다.

필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남편이 1964년 문리대에 입학한 동기생 모임이 만들어 6년째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간지 신문과 서울대총동창회 회보에 가끔 기사가 나는 「마로니에회」가 바로 이 모임이다. 이 문리대 64학번 모임의 인적구성을 대략 살펴보면, 교수가 한 40~50명 배출되었고, 국회의원 한 사람, 차관이 서너 명 배출된 것 같으며, 언론인들이 많은 것 같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더러 있으며, 성공한 금융인들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는 것 같다. 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치과, 의과도 예과는 문리대로 입학했다고 한다.

문리대라는 대학은 전공이 전혀 다른 여러 학과가 모여서 한 대학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학과만 해도 서른개가 넘는다. 한 개 학과의 정원이 20명이니, 졸업아 6백명 이상이 입학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보면, 졸업아 50명 안팎이 참석하시는 것 같다. 이 모임이 있는 날 남편은 일주일전부터 생

몹살을 앓는다. 밤낮으로 동기생들의 집으로 전화를 해댄다.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공해도 예사로 심각한 공해가 아니다. 5년 넘게 이 모임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를 알만했다. 필자는 남편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면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잘 때도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산하 여러 단과대학 동창회들이 조직되어 있지만, 유독 문리대만이 그것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아예 조직의 구성 자체가 어렵기도 한 모양이었다. 전공 자체가 다들 다르고, 졸업생들의 성격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고 독립불기의 특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문리대 자체의 졸업기념 문집도 없고, 앨범도 없다. 문리대를 하나의 모교로 아우르는 어떤 형식도 없는 듯하다. 졸업 대학의 이름만 서울대 문리대 일 뿐이다.

지금 막 58, 59세로 들어선 이들이 동거회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하기조차 하다. 그래도 6년 동안 망년회와 신년교례회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신기하기조차 하다.

1998년도에는 서울대총동창회로부터 최우수 동기회 표창까지 받은 것 같다. 필자는 이들이 그 긴 기간 동안 동기회를 하면서, 한번도 회비를 거두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모임의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까짓 몇 만원 회비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번 모임 때마다 근 백만원 가까운 경비가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동기생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한다. 그 차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보고 다음은 네가 내어라 하는 것도 아니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다음 번은 내가 한번 전동기생을 모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바깥양반은 죽어라고 전화통을 돌려대는 것이다. 그래도 두 달에 한번씩은 모여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 같다. 그 흔해 빠진 부부 동반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언젠가 부인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조선포텔과 하얏트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진 적은 있었는데, 데려다놓기만 했지 아내들을 위한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술만 마시다가 헤어져버렸다. 고지식한 양반들, 어쩌면 저렇게 놀 줄을 모르실까. 그리고 여자를 위할 줄 모르실까. 순진하기가 어린아이들만 같다.

그래도 최근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이하기도 하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남자 주부」는 정말 안되는 걸까요? 남자가 주부 노릇을 하는 건 아무래도 「얼굴 많이 팔리는」 일인가요?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못받을 만큼 남자가 낮동안 집안에 머무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서울 강남구 서초동 00번지 CEO」라는 명함을 내미는 건 우리 사회에선 터무니없는, 정신 나간 짓일까요?

KBS 1TV의 일일극 「사랑은 이런 거야」는 바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9시 뉴스 전에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다양한 남녀상을 보여주지요. 아들만 셋 둔 집과 딸 하나만 애지중지 키운 집, 남편과 헤어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을 키우는 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을 통해 「미혼모」 「이혼가정의 자녀결혼」 「이복 자매의 갈등」 그리고 「남자 주부의 가능성」 등 한번쯤 짚어봐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쨌거나 제 눈길을 끄는 건 아들만 셋 있는 집의 장남이 주부를 자처하는

겁니다. 출판사에 다니던 아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부하직원 대신 사표를 쓰곤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실은 요리 등 집안일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아내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식구들의 아침식사를 대신 장만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상을 차리기도 하지요.

아버지가 애써 주선한 직장에도 안가고 요리학원에 다니는가 하면 최근엔 아예 부엌에서 각종 음식을 만들어 아내와 집안식구들을 먹이지요. 우렁각시가 아니라 우렁신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건 요리사입니다.

「맛있는 청춘」에선 탤런트 박근형과 정준이 중국요리사로 나오고, 「온달왕자들」에서도 셋째아들이 요리사로 분했습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SBS드라마 「피아노」의 주인공 역관(조재현)은 조폭이다가 갱생,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만듭니다. 뿐인가요, 언젠가 방송된 「루키」에선 무역상사를 때려치우고 미용사를 택하는 남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주부가 등장한 건 MBC드라마 「아줌마」였습니다. 애인인 여자교수(심혜진)가 임신하자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한국 남자의 초상 2 「남자 주부」

입니다. 스스로 「손이 빠르다」 「내손만 가면 뭐든지 풍성해진다」고도 말하지요.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까지 아들의 음식솜씨를 인정, 집안일을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어쩔 니네들은 그렇게 반대니? 신랑은 온갖 걸 만들어 먹이고 싶어하는데 너는 만들어 놓은 것 차려먹기도 귀찮아 하니. 그렇게 거꾸로 만난 것도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만」이라고 불뎡 소리를 합니다.

물론 요리를 더 배워 음식점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낮에 걸레질을 하는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하지요.

TV드라마에 남자 직업으로 요리사 미용사 등이 공공연하게 등장한 건 IMF사태 이후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기존의 남자 직업군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까닭인 듯합니다. 가장 흔히 대두되는

살림을 하겠다며 구혼하는 남자(송승환)가 탄생된 것이지요. 실제 세상은 남편의 육아후직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남성들도 나올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휴렛팩커드의 칼리 피오리나의 남편을 비롯, 유명 여성CEO의 남편들이 주부를 자처하며 아내를 외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의 예를 들 것 없이 국내에서도 남녀의 역할 경계가 무너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여자 일, 남자 일을 가려 시킬 때는 지났다 싶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돈을 벌고 살림은 여자가 한다는 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깥 놀이가 더 좋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소꿉놀이를 더 즐기는 남자도 있습니다.

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지금 성역할을 굳

이 나눌 필요가 있을 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우리 나라에 귀화한 박노자씨는 최근 저서 「당신들의 대한민국」에서 노르웨이 대학교수로 가서 느낀 점 중 한가지를 이렇게 썼더군요.

「입사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남성보다 더 유리한 나라에 살면서 여성들이 손님 의 냉면이나 잘라주는 음식점 아줌마 정도의 역할밖에 맡지 못하는 고국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기가 가슴아프다」고요. 그러나 가슴이 아픈 만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절실해진다라고도 썼습니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택해야 하는 때입니다. 평생직장은 없어도 평생직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엔 사내 커풀 중 남자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의 노동유연성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는 은근히 여자쪽의 능력을 높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허물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힘든 건 여자보다 남자일 것이라고 말한다면 또 「무슨 억지 소리」라고 하실런지요?

그러나 남자주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풍토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도 못받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눈을 피해 산에 오르는 현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런지요.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달가와 하지 않는 건 「있어봤자 도움은 안되고 걸거치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고, 아내와 함께 취미를 개발하면 일부러 밖에 나가야 하는 황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살림하는 남자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 때 남녀 모두 쓸데없는 성역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듯합니다만...

SNUA OPINION LEADER

유전자로 우리 민족 뿌리 찾는다

지난해 12월 모교 의대 李弘揆교수가 「유전자로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당뇨병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유전자에 관심을 갖게 된 李교수로부터 한국인의 조상이 인류의 기원지인 아프리카를 떠나 어떤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는지 들여보았다.

유전과 진화, 그리고 분자시계

유전적 소질(체질)이 병의 발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알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된 배경이다. 이 20세기 최대의 과학적 성과가 완성되어 우리는 유전자의학, 게놈의학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구성(체질)을 알아 치료에 적용한다는 생각은 사실 조선말기의 李濟馬가 주창한 사상의학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체질은 그 환경에 적응된 결과이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은 어떠한 환경에서 진화되었는가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유전학과 진화론을 기본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또 그 부모는 그들의 부모를 닮는다. 이것이 유전의 기본 개념이다. 자손이 생기는 과정은 아버지에서 온 정자와 어머니에서 온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시작되는데, 이 복제과정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성인으로 형성될 때까지 오류 없이 진행되게 된다. 그 유전정보는 46개의 염색체에 나뉘어 있는 4가지 DNA염기 30억 개의 서열 속에 있는데, 이 염기서열의 변이에 의하여 생명체의 기능이 달라지고, 환경에 적응이 된 것이면 선택된다는 것은 새로 정립된 진화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생명현상의 이해에 있어 후에 이야기할 미토콘드리아와(생명 에너지 문제), 그 유전체(mtDNA),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복잡성(complex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아무려나 종이 다르면 염기서열도 달라, 원숭이의 염기서열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 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염기서열의 차이도 큰데, 진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클수록 진화가 일어난 시간이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주커칸들과 풀링이 제시한 「분자시계」의 개념은 지질학적으로 얻어진 자료들을 대비함으로써 확립돼 있다.

인류의 진화 : 아프리카 기원설

찰스 다윈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인류가 약 6백만년 전 침팬지와 공동조상으로부터 분지되어 아르디피테쿠

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신, Homo habilis를 거쳐 Homo erectus가 나와 3만년 전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여 년 전까지 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인을 거쳐 현대 인류가 각 지역에서 진화했을 것이라는 소위 「상델리아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트링거와 윌슨 등에 의해 현대 인류가 약 15만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나타난 후, 그 후손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모든 인류의 부모가 되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했다. 이후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은 현 인류(크로마뇽인)에 의하여 대체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대개 받아들이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같은 것으로, 생명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공장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수억년 전 무산소로 에너지를 만들던 어떤 미생물이 유산소호흡을 하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 공생을 하게 된 생명체의 단위인데, 자체내에 DNA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있어서, 핵 DNA와 달리 mtDNA는 난자를 통해 모계로만 유전된다. 또 mtDNA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커서 친자감별에 쓰이는데, 세계 각처 사람들의 mtDNA를 조사하여 분자시계에 비추어 보면 약 15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에서 모두 나뉘어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미토콘드리아 이브).

한편 성염색체 Y가 있으면 남자가 되고, XX면 여자가 된다. 이 Y염색체에는 특정 DNA서열이 기생하듯 들어 있는데, mtDNA에서처럼 그 변이를 분석한 결과 인류의 남자 원형은 약 5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인류의 이동도를 뉴욕 타임스가 게재한 적이 있는데, 필자가 고친 것을 신동아 1월호나 과학동아(dongascience.com/home)에서 볼 수 있다.

더 위로 올라가 mtDNA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인류들 사이에는 8개의 염기서열 차이를, 네안데르탈인들 사이에는 27개, 유인원들 사이에는 55개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로부터 인류는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약 60만년 전에 나뉘었다고 계산되고, 아프리카에 있던 네안데르탈인의 일부가 유럽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멸종하고,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현 인류의 부모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한민족의 기원 : 두 가지 뿌리

아프리카에 있던 네안데르탈인에서 현 인류의 조상이 나왔고, 이들이 세계 각처로 이동했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왔는가? 카발리-스포르차 교수는 1988년 미국 과학원회보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차이와 유전자의 차이로 전세계인을 분류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티베트인, 몽골인들은 에스키모,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묶고, 중국 남부인들은 캄보디아,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들과 함께 묶었다. 일본인의 mtDNA 유전형 분포 패턴을 보면 약 12만년 전에

분지되는 두개의 클러스트(20%와 80%)가 있고, 단국대 김 욱 교수의 Y염색체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약 30%는 남부 아시아인들의 유전형을 가지고, 70%는 북부 아시아인이다. 한민족의 뿌리는 두 갈래인 것이다.

이 두 그룹의 형성은 2가지 경로로 이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하나는 인도양과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동으로 이동하는 미얀마 경로이다. 중국에 현 인류가 정착한 것을 약 6~7만년 전으로 본다면 이즈음 한반도에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한편 Gm이라는 혈청 단백질형의 특징형은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사는 부리아트인에게서 가장 고밀도로 존재하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감소한다. 이 분포는 여기에서 이 유전특성이 발생하고,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동하며 유전자 풀에 섞여 들어갔음을 시사한다(시베리아 경로).

북방 아시아인의 한반도 이동

약 1만5천년 전부터 약 3천년간 지구 대기의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여 빙하가 녹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때 동북아시아, 특히 바이칼 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해 원주민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돼버렸다. 미국 NASA의 위성사진(visibleearth.nasa.gov)으로 보면 중국동부에 빙하의 퇴적물이 쌓인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면모는 부리아트인이나 미국 인디언과 유사한데, 북방 아시아인의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북부 중국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이 정착한 것이 1만1천년 전이므로, 한민족도 역시 빙하가 녹으면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마지막 빙하기에 대한 책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몽골 지역과 시베리아를 잇는 광대한 지역이 마지막 빙하기에는 빙하로 덮이거나 광대한 영구동토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 여건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장벽이 되었을 것임을 쉽게 납득하게 한다.

바이칼 호에 대한 연구 있어야

바이칼 호는 유럽의 중소국가 벨기에 크기의, 최대심도 1천7백42m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데, 무려 1천2백종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전적으로 독특한 동물들이 여기서만(진화하여) 살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바이칼 호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 어느 곳의 문화와도 다른 독특하고 복잡한 문화가 발달했는지 수수께끼라고 하고 있다. 이곳에서 문화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면, 에스키모인 같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이칼 호수처럼 곳곳에 온천이 나오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李 弘 揆

- 1968년 모교 의대 졸업
- 1971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77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5년 과학기술진흥원 정회원
- 1999~2000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 2000년 아시아 분자당뇨병학회 회장
- 현재 모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한편 현재 흑해에서는 미국과 불가리아의 합동 탐사팀이 타이타닉호를 건져낸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의 지휘아래, 대홍수 이전 이 지역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보다 앞선 문명이 존재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노아의 방주를 찾고 있는데, 필자는 1만5천년 전 바이칼 호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호수와 문화가 물에 잠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칼 호수의 물이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맑고, 그 양이 세계에 있는 모든 담수의 6분의 1이나 되고,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강들의 수량으로 호수를 채우려면 무려 4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이칼 호가 잠기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북부 아시아인의 조상이 간빙기에 이곳으로 이동했다가 5~6만년을 머물면서 추위에 이기는 특성을 얻게 되고, 남부 아시아인들이 6~7만년 전 미얀마 통로를 거쳐 동아시아로 와서 살고 있다가 상전이 빚어지는 혼란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었다고 했을 때, 해빙기로 길이 열린 북부 아시아인들이 남으로 이동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것으로 12만년 전 이루어진 일본인의 두 클러스터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격리된 지역에서 장기간 살면서 진화해야만 그 지역에 적응된 형질을 얻을 수 있는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적응된 것으로 해석되는 북부 아시아인들의 특징도 설명이 된다. 나아가 부리아트, 몽골인, 아메리카 인디언과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유사성과 Gm형의 분포 패턴도 북부 아시아인의 특징이 바이칼 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직 하나의 가설이다. 증거를 얻기 위해 동북아시아인에 대한 자세한 유전자 풀의 분석이 있어야 하고, 바이칼 호에 대한 자료의 분석과 탐사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남의 손에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인류의 진화(Evolution)와 질병의 역학(Epidemiology)을 연결하는 EVE 계획(미토콘드리아를 중시하는 암시를 포함하여)과 이번 7월 바이칼 호반 이르크츠크에서 가지려고 하는 조그마한 학술모임은 필자에게 한가지 일이라 할 수 있다.

특지장학금 출연 봇물 터져

현재까지 21개 특지장학회 운영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광토건 林光洙회장, 지질학과동창회, 재미동창회 吳仁錫 명예회장 등의 특지장학금 출연이 봇물 터지듯 쇄도하고 있다.

특지장학금 제도는 본회가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및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1구좌 5천만원)를 설립,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교 재학생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 전액을 안정적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운용수익으로 장학금

을 지급하고, 그 과정을 출연자에게 보고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출연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직접 선정, 매년 2월과 8월에 시상할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별도의 비용없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연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는 「특지장학회」의 모든 권리(선발, 지급, 운영)가 출연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귀속돼 영구히 운영된다.

현재까지의 장학회 내역을 살펴보면 21개 특지장학회(50개 구좌)와 3개 기금장학회가 운영

되고 있다. <별표 참조>

기금장학회는 특지장학회 설립의 뜻은 있으나 출연금이 부족하여 장학회를 우선 설립 후, 추가 납입을 약속하고 운영중인 장학회이다.

한편 본회는 재단법인 관악회 2002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동문 또는 기별동문회와 모교 재학생간의 1대 1 결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지장학회·기금장학회와는 별도로 동문 개인 또는 기별동문회와 재학생 1명을 결연시켜 등록금 전액만큼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후배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문은 물론 학부모, 기업, 단체, 서울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지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702-2233)

특지 및 기금 장학회 내역

(출연순, 1구좌 5천만원)

	장학회 명칭	설립자	구좌/금액	기지금장학생수 (총원)
1	洪性大특지장학회	洪性大(63년 文理大卒) 상산학원 이사장	6구좌	59명
2	李吉女특지장학회	李吉女(57년 醫大卒) 경원대 총장	2구좌	27명
3	金讚淑특지장학회	金讚淑(60년 齒大卒)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4구좌	18명
4	亞南특지장학회	金柱津(54년 法大入) 아남그룹 회장	10구좌	60명
5	張世一특지장학회	張世一(63년 工大卒) 일성(주) 회장	2구좌	8명
6	朴柱鐸특지장학회	朴柱鐸(74년 商大卒) (주)큐피스 회장	1구좌	7명
7	楊銀淑특지장학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간협 선거관리위원장	1구좌	5명
8	齒佛會기금장학회	치대 불교학생회 OB	2천5백만원	5명
9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회	鄭八道(1기 AIP) (주)홍인 회장	2구좌	9명
10	李世震기금장학회	李世震(73년 法大卒) 본회 사무총장	1천만원+ 주식2천주 (1천5백만원 상당)	5명
11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회	黃海根(60년 工大卒) 동일기술공사 회장	1구좌	5명
12	李道卿·李燦振 특지장학회	李道卿(63년 農大卒)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李燦振(89년 工大卒) 드림위즈 사장	1구좌	3명
13	李鍾基특지장학회	李鍾基(73년 商大卒) 상영무역 사장	2구좌	14명
14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회	화학과동창회	1구좌 (6천6백50만원)	3명
15	朴明潤특지장학회	朴明潤(76년 保大院卒) 청소년연구소 이사장	1구좌	12명
16	鄭哲圭특지장학회	鄭哲圭(52년 工大卒)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2구좌	6명
17	金秉順특지장학회	金秉順(4기 AMP) 한국구아노 이사	2구좌	8명
18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회	鄭大永(55년 商大卒) 前한주통상 고문	1구좌	2명
19	金鍾祺특지장학회	金鍾祺(55년 師大卒) 인제고교 교장	1구좌	2명
20	洪尙郁특지장학회	洪尙郁(87년 農大卒) 성지출판 사장	1구좌	2명
21	李元珪기금장학회	李元珪(63년 農大卒)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1천만원	2명
22	孫致武특지장학회	지질학과동창회	2구좌	
23	吳仁錫특지장학회	吳仁錫(62년 法大卒) 재미동창회 명예회장	1구좌	
24	林光특지장학회	林光洙(52년 工大卒) 임광토건 회장	6구좌	

※ 지난 1998년 3월 田溶星(50년 文理大卒) 변호사가 1천만원을 출연해 설립한 「田溶星기금장학회」는 98년 2학기부터 99년 2학기까지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종료됨.

※ 「朴明潤특지장학회」는 기존 출연금 외 遺贈이 별도로 있음.

임광토건 林光洙회장

「특지장학금」 3억원 출연



최근 본회 수석부회장이며, 공과대학동창회 회장인 임광토건 林光洙(52년 工大卒)회장이 특지장학회 설립 기금으로 3억원(6구좌)을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林光洙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 6명에게 「林光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경 충북도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이끌어가는 「사단법인 충북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林회장은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86년 충북장학회를 설립,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孫致武특지장학회」 설립

특수건설 金鍾璫회장 1억 쾌척



지난 1월 10일 본회 金在淳회장이 지질학과동창회 金英雄회장(右)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2월 31일 (주)특수건설 金鍾璫(52년 文理大入)회장이 지질학과동창회를 통해 본회에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다.

2000년 1월 별세한 지질학과 孫致武 명예교수의 제자인 金회장이 스승의 업적을 기리며, 국내 지질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뜻 기금을 쾌척

한 것이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지질학과동창회(회장 金英雄)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孫致武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미동창회 吳仁錫 명예회장

「특지장학금」 5천만원 기부



최근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 명예회장(사진)이 특지장학회 기금으로 본회에 5천만원을 출연했다.

본회 부회장이며, 재미동창회 「모교와 후진을 위한 1백만불 기금위원회」 위원장인 吳회장은 지방출신 학생 중 서울에 연고가 없으며,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 1명에게 1년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吳仁錫특지장학회」 명의로 2월에 열

릴 200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부터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법대, 경영대 등의 순으로 돌아가며 재학생 1명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지부

야유회 일정 협의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奎)는 지난 1월 18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트룸에서 2002년도 신년하례회 및 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文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개최될 여러

모임에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특별히 그간 마련하지 못한 부산지부의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10월에 서울대 동문가족 등산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2월에 부부동반으로 참가하는 「서울대의 밤」 행사를 열기로 의결했다.

대전·충남 지부

등산대회 개최 예정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熙熙)는 지난 1월 11일 유성관광호텔 코스모스홀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작년 한해의 동창회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吳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동창회의 단합을 위해 동문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회원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등산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동문 주소를 파악해 회원명부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 지부

지역발전 방안 논의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池弘源)는 지난 1월 14일 프린스호텔 갤럭시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權泰仁(78년 人文大卒)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지부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참석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池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

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동문들이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文熹甲(66년 行大院卒)대구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지난 해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정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테너 申衡燦(90년 音大卒)동문의 축하 「벚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겼다.

정치·외교학과

신임 회장에 朴鍾圭동문 선임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具範謨)는 지난 1월 11일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鍾圭(61년卒·KSS해운회장)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朴회장은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선배동문들뿐만 아니

라 젊고 패기 있는 후배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자』고 말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동창회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具範謨·桂昌鎬(54년入)동문을 고문에 추대하고, 부회장에 李澤徽(61년卒)·金學俊(65년卒·본회 부회장)·鄭鍾旭(65년卒)·李富植(66년卒)·安清市(67년卒)·張重雄(68년卒)·洪思德(68년卒)·金大起(69년卒)·張乃植(69년卒)·朴熙俊(70년卒)·李圭煌(70년卒)·朱鎮吁(74년卒)동문을 선임했다.

또 감사에 許 璲(68년卒)동문을 선출했다.



광주·전남 지부

단대 모임 활성화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李乃均)는 지난 1월 8일 제일오피스텔 무궁화홀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承基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새로 동창회에 입회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단과대별로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키자』고 당부했다.

공과대학

1백여 동문 모여 신년인사 나눠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金基衡·明泰鉉·朴鍾澈·鄭哲圭·李達雨·金貞植동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로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의 질과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서 인류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이며, 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응용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격려했다.

또 『지난 12월 19일 공대 출신 유력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공대발전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학장은 대학 현황 소개를 통해 『작년에 미시간대, 옥스퍼드대와 공동강의를 실시했으며, 공대 교수님들이 국내외 논문상·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또 『공과대학 2공학관이 준공돼 이전 작업이 진행중이며, 鄭哲圭 前회장이 거액을 기증해서 계획한 信陽학술정보관이 설계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로 선배를 대표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金基衡동문이 모교와 공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건배를 제의했다.

자연과학대학

신임 회장에 朴鍾世동문 선출



자연과학대학동창회(회장 陸寶根)는 지난 1월 11일 모교 호암생활관 릴리움에서 모교 朴聖炫학장, 金熙濟교무부학장, 安正善학생부학장, 尹淳昌기획실장, 李啓準교수를 비롯해 동창회 成耆重사업이사, 張斗鎰총무이사, 화학과동창회 金秀子회장, 통계학과동창회 李榮祚부회장, 미생물학과동창회 安泰奭회

장, 대기과학과동창회 박문수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한해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특히 앞으로 선출될 회장단을 주축으로, 동문 모두가 참여하는 동창회, 화합과 단결이 빛을 발하는 동창

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李啓準교수가 올 3월부터 개강되는 자연대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SPARC)」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李교수는 본 과정이 과학 문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과학분야를 좀더 대중화시키고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한 삼보컴퓨터 李龍兌회장, 금성초등학교 尹沃榮교장 및 현 陸회장을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 회장에 朴鍾世(66년 文理大卒·랩프런티어 사장·前식품의약품안전청장)동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朴聖炫학장은 지난 2년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陸寶根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亨>

법과대학

영전 동문 13명 축하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裴命仁)는 지난 1월 17일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奭熙·孫京植·崔秉烈부회장 등 각계 인사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첫 여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趙培淑(79년卒)동문,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李康國(67년卒)동문 등 최근 영전한 13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낙산장학회 이사이자 변호사로 활동중인 李相赫(58년卒)동문이 재학생 대표로 참석한 박해진(법대 4년)군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의과대학

「캠퍼스 투어」시행키로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1월 11일 독산동 「로얄가든」식당에서 회장단 및 고문단 신년하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尹汝成(81년 獸醫大卒)부총무가 작년 한해의 행사를 결산하며, 올해 달력 제작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2년 사업계획을 통해 50세 이상의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실무위원장에 모교 金善中(66년 獸醫大卒)교

수를, 위원에 禹希宗(81년 獸醫大卒)·尹汝成교수를 선임했다. 또한 50세 이하의 젊은 후배에게 수여하는 「젊은 수의대인상」 제정은 추후 회의를 거친 후 동문들에게 발표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정기총회 겸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 분야별 세미나, 학교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在美 동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여름방학을 통해 동문 자녀들이 모교를 관람하며, 수의학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치과대학

교보생명과 제휴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梁源植)는 지난 1월 25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梁회장은 인사말에서 『격동의 21세기에 모교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며 『현재 치과생체연구동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작년 말에 치의학박물관을 개관, 모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도가 낮아 장학금 모금운동,

회보제작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활기찬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李起澤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통해 『모교의 후광을 받으며 졸업한 요즘 동문들은 학창시절 받은 은혜를 다시 보답하는데 많이 인색한 것 같다』며 『올해에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창회는 올해부터 교보생명과 제휴, 보험에 가입한 동문들의 기금 중 일정액을 적립해 추후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제1회 「서울대 AMP 대상」 시상



金勝猷



尹錫金



李潤雨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제1회 「서울대 AMP 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팔목할만한 업적을 쌓은 동문에게 수여하는 제1회 「서울대 AMP 대상」에 하나은행 金勝猷(19기 AMP)은행장, 웅진그룹 尹錫金(27기 AMP)회장,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李潤雨(69년 工大卒·39기 AMP)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기계동문회

「회원 자격·임원 임기」회칙개정



기계동문회(회장 禹仁性)는 지난 1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공과대학동창회 林光洙회장이 축사를 통해 『서울대인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야속하더라도 기골있는 선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헤르만 헤세는 인생살이의 본질은 떠도는 구름에서 고뇌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에게 무한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로 8旬을 맞이하는 高源鎬·金孝經동문에게 꽃다발

을 증정했으며, 2월말이면 父子동문이 되는 한양대 李在憲(71년卒)교수와 아들 대호(02년 졸업예정)군이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칙 중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개정했다. 또 2년으로 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이날 모임에 현대자동차 金東晉(72년卒)사장이 연사로 참석해 「현대자동차의 경영전략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국어교육과

朴甲洙회장 뽑아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惠相)는 지난 1월 3일 서울코리어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 李應百(49년卒) 명예교수, 세계시인 시낭송문학연구회 朴英子(50년卒)회장, 禹寅燮(51년卒)前국제대 교수가 동창회 및 동문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덕담을 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무보고 및 재무보고에 이어 신임 회장에 朴甲洙(58년卒·모교 명예교수)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감사에 卓殷秀(65년卒)·金慶洙(67년卒)동문을 선임했다. 또 재학생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으며, 「李 鐸선생 회고집」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表)

간호대학

동문 바자회 가을에 개최기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1월 1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학생휴게실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俞淑子부회장은 이날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차회장을 대신해 동문 근황을 소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모교 尹順寧(73년卒)교수와 25년간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에 헌신한 趙星愛(54년卒)동문을 높이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2002년 계획을 통해 올 가을에 동문 바자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산업전략과정

黃樹寬교수 「건강관리」 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1월 11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 李基俊총장 및 李長茂학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특별히 李仁濟(72년 法大卒·24기 AIP)·朴權惠(26기 AIP)국회의원이 올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인사를 했다.

이어 高昇熹총간사장이 모교 姜錫昊(70년 文理大卒)·姜泰晉(75년 工大卒)·朱鍾南(79년 工大卒)교수 등을 소개하며 선후배 동문 친교의 시간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특별 연사로 초청된 연세대 의과대학 黃樹寬교수가 「성인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지질학과

金英雄회장 추대

지질학과동창회(회장 崔淳學)는 지난 12월 8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1년 재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 회장에 金英雄(67년 文理大卒·농업기반공사 지하수사업처장)동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감사에 李在容(65년 文理大卒·백산엔지니어링 상무)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지난 1월 5일 개최된 신년회에서 金회장은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운 崔淳學(64년 文理大卒)전임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원로선배들을 모시고 선후배간에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교육학과

5월 5일 모교 방문

교육학과동창회(회장 尹正一)는 지난 1월 5일 모교 동원생활관에서 월드킴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李榮德회장, 鄭元植 前 국무총리 등 동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지난 12월 8일 가진 정기총회에서 동문가족 모교방문 및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호(제286호) 5면 「추억의窓」 기사 중 「李宗秀사범대학장」을 「李鍾洙사범대학장」으로 정정합니다. 또 23면에 게재된 사범대학동창회 송년회 기사 중 참석인원 「80여 명」을 「1백90여 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독어교육과

金學泉회장 선임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鎭吉)는 지난 1월 25일 서울대역 「로얄웨딩홀」 뷔페식당에서 모교 曹昌燮학장, 李東昇명예교수, KBS 柳根榮보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權禎鉉(81년卒)총무가 작년 한해 있었던 동창회 활동에 대해 보고했으며,



새로 입회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金學泉(63년卒·EBS 사장)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사회교육과

유공동문 공로패 전달

사회교육과동창회(회장 曹道根)는 지난 1월 4일 프레지던트 호텔 신세계홀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2001년 회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모교 李美娜(77년卒)교수가 모교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동안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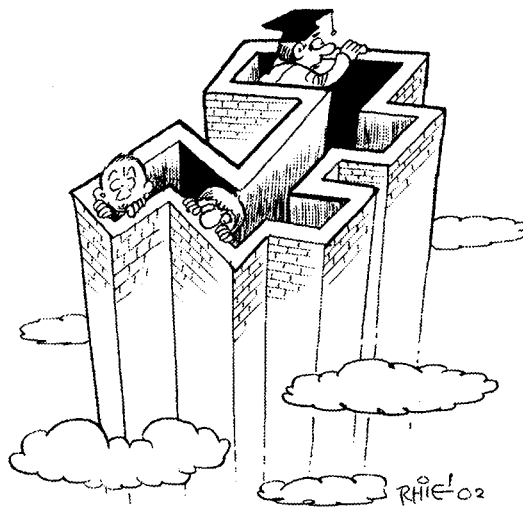
들의 귀감이 된 文尙鎬(55년卒)·閔丙駿(56년卒·본회 부회장)·李康夏(60년卒)동문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2002년에 모교 은사인 金桂淑·金基錫선생의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 韓基彦(49년卒)·尹鎔柝(56년 文理大卒)·車京守(59년卒)명예교수와 孫鳳鎬(61년 文理大卒)교수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했다. (表)

만평

李元馥



높을수록 스스로를 가두기 쉽다!

동 정

수 상

▲閔丙一(56년 齒大卒·민일치과의원장·모교 명예교수)=최근 베트남의 빈둥성 및 벤체성에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봉사를 펼친 공로로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국민보건훈장을 받음.

▲李梓旭(65년 工大卒·노키아 TMC 회장)=지난 1월 28일 핀란드 경제와 정보통신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핀란드 정부로부터 최고영예훈장을 받음.

▲金潤澤(70년 經大院卒·대광 흥산 회장·양전장학회 이사장)=지난 1월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안보 평화 통일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부터 20년 근속 공적으로 표창을 받음.

▲柳子孝(75년 師大卒·SBS 라디오본부장)=지난 1월 24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계간 우리문학이 주관한 제

9회 후광문학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池哲根(51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KCIE)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李貞錫(54년 文理大卒·KBS 시청자위원장)=지난 1월 22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제16차 정기 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李時榮(59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1월 3일 전주대 제8대 총장에 선임돼 2월 5일 전주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짐.

▲崔吉洙(61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6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하얼빈의대 명예교수에 위촉됨. 또 미국

에서 발간되는 Neurosurgery Quarterly(신경외과 계간지)의 편집위원에 선임됨.

▲李明載(65년 法大卒·前서울고검장·변호사)=지난 1월 17일 검찰총장에 임명됨.

▲金相榮(65년 行大院卒·전자신문 사장)=지난 12월 31일 전자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金曙雄(65년 商大卒·서울경제신문 부사장)=지난 1월 14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奉鐘憲(66년 文理大卒·前기상청장·공주대 초빙교수)=최근 창립된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申仲植(66년 文理大卒·前시사저널 발행인·월드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지난 1월 16일 국정홍보처장에 임명됨.

▲愼榮樹(67년 文理大卒·베이징저널 발행인)=최근 열린 재중국한인회 연차총회에서 임기 1년의 한국인회 회장에 재선임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 회장·동환산업 상임지식고문)=지난 1월 11일 동환산업 인사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姜哲圭(68년 商大卒·서울시립대 교수)=지난 1월 25일 공식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30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상남언론재단 제7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됨.

▲李世震(73년 法大卒·本會 事

晩學의 결실 거둔 卞柱仙동문

연대서 보건학 박사학위 받아

오는 2월 25일 대림성모병원 卞柱仙(64년 師大卒·본회 부회장)원장(사진)이 「인삼섭취와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卞동문의 이번 연구논문은 집단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인삼섭취와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두 번째 역학연구이며, 인삼섭취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첫 번째 역학연구이다.

卞동문은 모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10월 모교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제작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을 맡고 있는 卞동문은 지난 1996년 세계의 난민과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화사업을 펼친 공로로 인도 정부로부터 은코끼리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모교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바 있다.



▲高永才(74년 文理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12월 31일 한겨레신문 광고국장(이사대



우)에 선임됨.

▲金容學(75년 法大卒·前재미동창회 사무총장·뉴욕 변호사)=최근 11년간 몸담았던 Wasserman Schneider Babb & Reed 법률법인을 떠나 Feldman Weinstein LLP 법률법인 변호사로 자리를 옮김. (e-mail: ykim@feldmanweinstein.com)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최근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에 선임돼 3월부터 강의할 예정임.

▲李啓炯(77년 師大卒·前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최근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에 임명됨.

▲姜承求(84년 法大卒·前모교 홍보팀장)=최근 한미필름테크 이사에 선임됨.

▲朴成得(20기 ACAD·前정보통신부 차관)=지난 12월 31일 전자신문 사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本會顧問)=지난 1월 23~25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하시학원과 교수·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함.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本會首席副會長·工大窓會會長·충북협회장)=지난 1월 1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충북출신 재경인사를 초청, 신년교례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23일 하얏트호텔 튜립룸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신년회를 개최함.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언론인포럼 회장)=지난 1월 17일 한국언론재단 매화홀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한 아주대 朴東淳(57년 法大卒)교수를 초청, 「팔레스타인의 장래」를 주제로 오찬강연회를 가짐.

▲鄭鏞斗(57년 文理大卒·바울학회장)=최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회설립 7주년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감리교신학대 金得中(65년 文理大卒)총장이 학술강연을 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會長·本會 副會長)=지난 1월 23~26일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서울대 의대 미주동창회 2002년 겨울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와 PACS 현황」 등을 소개함.

▲金載姪(60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원)=오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재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월 29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

2002년 학술대회 및 이사회에

참석함. 또 2월 6일 대한상의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종합토론회를 개최함.

▲鄭寅億(77년 社會大卒·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지난 1월 24일 미국 하버드대 정보통신정책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안식년을 보낼 일정으로 출국함.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화가)=지난 12월 27일 중국 자금성을 방문, 청의 마지막 황족화가인 愛新覺羅, 壽石 선생과 교류하면서 共鳴筆線화법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펼쳐 한국의 자존심을 살림. 또 2월 1~15일까지 코엑스 컨벤션센터 2층 조선화랑에서 「분열에서 화합으로」라는 주제로 제17회 개인전을 가짐.

▲李忠範(82년 法大卒·사단법인 정해복지이사장)=지난 1월 16~18일 「제11기 작은 사랑 실천운동」을 개최하

여 수화공연, 사랑의 휠체어 기금마련 캠페인(서초구청),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신광애 재활원) 등을 전개함. 또 1월 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함.

▲裴錫斌(85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공간을 나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李京美(89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1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

교육부총리에 李相周동문 임명 대통령 비서실장에 田允喆동문

지난 1월 29일 金大中대통령은 장관(급)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개각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李相周(60년 師大卒)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에 丁世鉉(71년 文理大卒)국정원장 특보, 법무부 장관에 宋正鎬(68년 司大院卒)前법무연수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에 蔡永福(59년 文理大卒)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업자원부 장관에 辛國煥(63년 法大卒)前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에 張丞玆(70년 商大卒)금융통화운영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韓俊皓(68년 農大卒)前중소기업청장을 기용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통해 비서실장에 田允喆(65년 法大卒)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수석에 金振杓(71년 法大卒)재정경제부 차관, 정무수석에 趙淳容(78년 人文大卒)KBS 보도국 주간, 경제수석에 韓惠洙(71년 商大卒)정책기획수석, 외교안보수석에 任晟準(71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품으로 귀국 독주회를 가짐.

▲이상은(97년 音大卒·부천시향 부수석)=지난 2월 6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마레, 피아졸라, 아이트켄,

도플러, 메시앙 등의 작품으로 귀국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1월 28일 분당 한국가스공사 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社

바이하기 하킵 사장의 예방을 받고,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함.

▲張昶珪(43기 AMP·한국국방연구원장)=지난 1월 29일 연구원 관영당에서 「테러리즘과

문명 공존」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정리=安興變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신순귀(88년 師大卒)군·송금숙 양=2월 16일 14시.

* 여성오(98년 人文大卒)군·임세윤 양=2월 24일 12시 30분.

* 최한경(90년 自然大卒)군·김은영 양=2월 24일 14시.

* 정성훈 군·이민정(96년 齒大卒)양=2월 24일 15시 30분.

公 演

■유니트리오 정기연주회 —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당신과 나(You and I)」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UNI Trio의 멤버 오유진(93년 音大卒·Bis퀵텟 단원·바이올린)동문과 오현승(96년 音大卒·부천시향 단원·첼로)동문이 세종대 김성미(피아노)교수와 함께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드뷔시, 아렌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회비납부 슬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11월 26일~2001년 12월 14일·一般: 2001년 11월 29일~2001년 12월 14일〉

상임이사

▲裴命仁 법대동창회장=20만원
▲李佑幸 수의대동창회장=20만원
▲梁源植 치대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강민정(95년 音大卒)=20만원
▲강병련(79년 師大卒)=20만원
▲김복자(76년 看護大卒)=20만원
▲김상기(69년 師大卒)=20만원
▲김성식(84년 社會大卒)=20만원
▲김수경(75년 法大卒)=20만원
▲김인섭(65년 工大卒)=20만원
▲김형기(76년 師大卒)=20만원
▲김형오(71년 文理大卒)=20만원
▲노영(77년 醫大卒)=20만원
▲문택곤(72년 商大卒)=20만원
▲박미선(86년 家政大卒)=20만원
▲빈영석(95년 工大卒)=20만원
▲손광수(79년 法大卒)=20만원
▲서상철(74년 工大卒)=20만원
▲신태은(82년 農大卒)=20만원
▲안문자(61년 美大卒)=20만원
▲엄호성(80년 師大卒)=20만원
▲오상수(88년 工大卒)=20만원
▲오세화(65년 文理大卒)=20만원
▲윤철중(90년 保大院卒)=20만원
▲이근욱(88년 工大卒)=20만원
▲이영열(46기 AMP)=20만원
▲이재익(83년 工大卒)=20만원
▲이재하(79년 工大卒)=20만원
▲이한규(80년 師大卒)=20만원
▲임주환(97년 醫大卒)=20만원
▲장철훈(63년 商大卒)=20만원
▲정명섭(80년 工大卒)=20만원
▲정진규(69년 法大卒)=20만원
▲조숙자(64년 農大卒)=20만원
▲최성호(73년 商大卒)=20만원
▲최은규(92년 音大卒)=20만원
▲최종진(76년 師大卒)=20만원
▲하경철(61년 法大卒)=20만원
▲함명호(62년 工大卒)=20만원
▲홍성식(70년 齒大卒)=20만원

이사

◇家政大學

▲박현순 ③ KBS 라디오1국장
▲이위경 ⑦

◇經營大學

▲권기출 ⑦ 제우기계 이사
▲김두진 ⑧ 현대정유 이사

◇工科大学

▲김광남 ⑥ 포스코개발 고문
▲김도심 ③ 신아화학공업 고문
▲김병준 ④ (주)거봉 감사
▲김왕신 ⑦ 텍소피아(주)
▲김종술 ③ 가스공사 부사장
▲김주환 ⑥ 내경ENG 회장
▲박용준 ⑥ 경남대 교수
▲백성기 ⑥ 동국무역 회장
▲설원길 ⑤ 원영기업 대표

▲송명호 ⑥ 수도씨에이씨 대표
▲송억영 ⑥ 평화엔지니어링
▲심일보 ⑦ 삼성물산 상무
▲오창석 ⑥ TPM컨설팅 전문위원
▲유준만 ⑦ (주)고열 대표
▲윤종구 ⑥ 선일기업 대표
▲이상각 ⑦ 코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이성관 ⑦ 한울건축 대표
▲이성렬 ⑤ 前성균관대 부총장
▲이시우 ⑦ 페트로코리아 대표
▲이재명 ⑦ 前건설기술연구원장
▲이흥원 ⑦ 삼성전자 상무
▲임승진 ⑦ 삼성화재 상무
▲전계복 ⑥ 포스에너지 고문
▲하길수 ⑥ 前한솔건설 전무
▲황선근 ⑦ 인하대 교수

◇農科大学

▲김재정 ③ 前한국종묘협회장
▲홍성표 ② 前국회의원

◇文理科大學

▲강성위 ⑤ 한국외대 명예교수
▲곽화영 ⑦ 에너지관리공단
▲김수진 ⑥ 서울대 교수
▲김용일 ④ 카톨릭대 대학원장
▲김정옥 ⑥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전 ⑥ 한진중공업 구매본부장
▲김형오 ⑦ 국회의원
▲박용욱 ⑥ 前국방부 차관
▲손대연 ⑥ 前한국기술금융 부사장
▲오희필 ⑤ 중도발전연구협의회장
▲이갑주 ② (주)정도기련
▲이계원 ③ SK 축구단장
▲이민섭 ⑤ 동아갤러리 관장
▲이병기 ⑦ 한나라당 총재 정치특보
▲이상렬 ⑦ 변호사
▲이수용 ⑦ 세이브 그린화원 대표
▲이영원 ③ 세방전지 전무
▲이준희 ⑥ 세기문화사 국장
▲이현구 ⑥ 서울대 부총장
▲임석진 ⑥ 명지대 명예교수
▲조순문 ⑦ 前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홍치모 ⑤ 총신대 교수

◇美術大學

▲임홍순 ④ 前이화여대 교수

◇法科大学

▲강재섭 ⑦ 국회의원
▲강진성 ⑥ 영보합법회사 부사장
▲금병환 ⑥ 변호사
▲김기석 ④ 변호사
▲김도선 ⑥ 반도보안공사 회장
▲김성룡 ④ 변호사
▲김영훈 ⑥ 송실대 교수
▲김용환 ⑥ 국회의원
▲김웅지 ⑦ 변호사
▲김하남 ② 前국회의원
▲남승우 ⑦ 풀무원 사장
▲문영길 ⑤ 변호사
▲박석규 ⑥ 한양유통 이사
▲박석인 ⑦ 금호산업 상무
▲백덕렬 ⑦ 한미합동 변리사
▲손기식 ⑦ 법원행정처 실장
▲송종익 ④ 前법제처장
▲신현일 ⑥ 변호사
▲안병찬 ⑥ 한국오르본 대표

▲안보영 ⑦ 에스비티(주) 상무
▲오유방 ③ 변호사
▲오종남 ⑦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원의중 ⑥ 계성제지 자금담당관리인
▲유덕택 ⑤ 인천일보 회장
▲윤경희 ⑥ 베어링부라더스 이사
▲이영주 ③ 조달청 시설국장
▲이용웅 ⑥ 부산고등법원장
▲이해규 ④ 삼성중공업 부회장
▲임무룡 ④ 강원도 행정부지사
▲장수길 ④ 김&장법률사무소 대표
▲정기영 ⑤ 우진종합상사 사장
▲조용국 ⑥ 변호사
▲최경원 ⑦ 前법무부 장관
▲홍인기 ⑥ 종근당 경영고문

◇師範大學

▲김희분 ⑦ 前연서중 교장
▲나도승 ② 금강권연구소장
▲신란식 ⑤ 만대학원 이사장
▲양금석 ⑤ 한국교회 목사
▲유병림 ⑤ 서울교대 명예교수
▲이광정 ⑤ 경원대 교수
▲이덕희 ④ 등원중 교장
▲이숙영 ③ 경기여고 교장
▲이한성 ⑦ 공학예식장 사장
▲조길준 ⑥ 前서울과학고 교장
▲주자문 ⑦ 충북대 총장

◇商科大學

▲강신종 ⑥ 前신세기통신 부사장
▲권태인 ④ 前종합기술공사 감사
▲김재수 ④ 한국우에니전자 고문
▲노경섭 ⑦ 한화그룹 부회장
▲민병윤 ⑤ 종합기술공사 감사
▲박명식 ③ 한국컴퓨터 회장
▲송병락 ③ 서울대 교수
▲유희춘 ⑤ 한일이화 대표
▲장종록 ⑥ 은성사 기술고문
▲정장식 ⑦ 포항시장
▲조중현 ⑥ 대전전기 대표
▲최수영 ⑥ 동아출판사 전무
▲최종찬 ⑦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
▲한재봉 ④ (주)파월 회장

◇獸醫科大學

▲공창욱 ④ 소사동물병원장
▲김순무 ⑥ 한국아쿠르트 사장
▲김종영 ② 세바코리아 대표
▲이재철 ⑥ 세왕양조 대표
▲조상래 ⑦ 연세대 교수
▲조영웅 ⑦ DR. JO&ASSOCIATES

◇藥學大學

▲권경곤 ⑥ 현암약국
▲권선주 ⑦ 한국스티펠 대표
▲김용정 ② 은행약국
▲김인제 ⑥ 남지약국
▲김진현 ⑦ 제일제당 이천공장장
▲신화용 ⑤ 크라운제약 대표
▲오연준 ⑥ 효진물산 대표
▲유영필 ⑥ 광성약국
▲이정준 ⑦ KAIST 유전공학연구소
▲정연심 ⑥ 화일약국

◇醫科大學

▲강치명 ④ 나사로병원장
▲김해룡 ④ 산부인과 원장

▲신동휘 ⑦ 신경외과 원장
▲신영배 ③ 명천의원 원장
▲안영국 ⑥ 산부인과 원장
▲염광원 ⑥ 서울대 교수
▲윤택구 ⑦ 원자력병원 암병리학
▲정태완 ⑦ 영일의원 원장
▲한홍두 ② 동아대 교수

◇齒科大學

▲김계종 ⑥ 치과의원 원장
▲노태래 ⑥ 치과의원 원장
▲박상근 ③ 치과의원 원장
▲윤두중 ⑦ 치과의원 원장
▲이순표 ⑥ 치과의원 원장
▲장영정 ⑥ 치과의원 원장
▲정행남 ⑥ 치과의원 원장
▲한응렬 ⑥ 치과의원 원장

◇大學院

▲심병구 ⑥ 서울대 명예교수

◇經營大學院

▲안성기 ⑦ (주)해풍 대표

◇保健大學院

▲김수철 ⑦ 성형외과의원장
▲이규한 ⑥ 단국대 부총장

◇司法大學院

▲정광희 ⑥ 변호사
▲허경만 ⑥ 전남도지사

◇行政大學院

▲이종찬 ⑦ 前국가정보원장

일 반

◇人文大學

▲고용자 ③ ▲곽성문 ⑦ ▲김경미 ⑦
▲김병욱 ③ ▲김원중 ③ ▲김정호 ⑤
▲노지원 ⑦ ▲박명규 ⑦ ▲박순발 ④
▲서대인 ⑦ ▲손예철 ⑦ ▲송희영 ⑦
▲오정택 ⑥ ▲유국환 ⑤ ▲윤상필 ①
▲이건협 ⑨ ▲이상훈 ⑩ ▲이혜목 ④
▲장희구 ⑥ ▲정기평 ⑦ ▲조응래 ⑦
▲조태환 ⑦ ▲천현정 ⑨ ▲홍순민 ②
▲황상선 ①

◇社會科學大學

▲강경식 ② ▲강대현 ⑨ ▲강은모 ②
▲강정수 ⑨ ▲강치구 ⑨ ▲권 일 ③
▲권영중 ⑧ ▲김근식 ⑧ ▲김석준 ⑦
▲김성철 ⑩ ▲김연국 ① ▲김영관 ⑨
▲김유동 ⑧ ▲김정우 ⑤ ▲김지성 ⑨
▲김지웅 ⑨ ▲김창기 ⑨ ▲김태윤 ⑩
▲김형석 ② ▲김홍석 ⑥ ▲박상용 ⑦
▲박인철 ⑥ ▲박재완 ⑦ ▲박재현 ①
▲박진성 ⑨ ▲박형규 ③ ▲방기혁 ⑦
▲서현규 ③ ▲성기홍 ⑨ ▲성주경 ⑦
▲손창익 ③ ▲송석준 ⑦ ▲심일혁 ③
▲오규원 ⑤ ▲원희표 ⑦ ▲유성용 ⑧
▲유시량 ⑩ ▲이강덕 ⑧ ▲이덕용 ⑦
▲이방형 ⑦ ▲이성훈 ⑥ ▲이승하 ⑥
▲이영수 ⑨ ▲이윤운 ⑨ ▲이우석 ⑦
▲이주홍 ③ ▲이철훈 ⑤ ▲이춘규 ⑧
▲이한녕 ④ ▲임명옥 ⑥ ▲임형택 ③
▲장경영 ⑨ ▲정기철 ⑦ ▲정병기 ⑧

▲정삼봉 ⑦ ▲정성호 ⑤ ▲정해일 ⑩
▲정훈순 ⑨ ▲조태형 ⑤ ▲전석규 ⑥
▲최기철 ⑥ ▲최연옥 ③ ▲최완수 ③
▲한성희 ⑤ ▲한영기 ② ▲홍진표 ⑦
▲홍탁균 ⑦ ▲홍현기 ⑩

◇自然科學大學

▲고관수 ④ ▲김동욱 ⑦ ▲김신원 ⑥
▲김재만 ⑤ ▲김효중 ⑧ ▲박 혁 ⑨
▲박동원 ⑦ ▲박종근 ⑦ ▲박진결 ⑥
▲박태준 ⑦ ▲송재기 ⑦ ▲신영범 ⑦
▲유봉희 ⑦ ▲윤석원 ④ ▲이승구 ③
▲이승환 ③ ▲이윤호 ⑤ ▲이준영 ⑤
▲임기건 ⑦ ▲정민결 ③ ▲조창근 ⑤
▲함광선 ⑦

◇家政大學

▲고선미 ⑧ ▲권훈정 ② ▲김순여 ⑤
▲김정원 ④ ▲민미란 ⑤ ▲박옥금 ⑦
▲박인숙 ② ▲백인경 ④ ▲손수미 ⑩
▲안운진 ③ ▲육완진 ⑥ ▲이신영 ⑥
▲이정덕 ⑤ ▲최병희 ⑦ ▲하유경 ⑦

◇看護大學

▲김경래 ⑤ ▲윤순영 ⑦ ▲이경숙 ⑥
▲정 한 ⑦

◇經營大學

▲강승문 ⑤ ▲김승우 ⑤ ▲김영진 ⑦
▲김종환 ⑧ ▲문경득 ① ▲박찬규 ⑨
▲백주한 ⑨ ▲소현정 ① ▲송석환 ⑦
▲안성철 ⑦ ▲오선영 ⑦ ▲오창호 ②
▲윤창배 ⑦ ▲이 평 ⑦ ▲이상진 ⑥
▲이희준 ⑦ ▲최은석 ⑨ ▲함시창 ⑦
▲홍유진 ⑨ ▲황성엽 ⑥

◇工科大学

▲강 훈 ② ▲강민성 ⑤ ▲강상규 ⑤
▲강상근 ⑥ ▲강정화 ⑤ ▲강형은 ⑨
▲고범석 ① ▲고상철 ⑤ ▲곽현규 ⑥
▲구종서 ⑦ ▲권승민 ⑧ ▲권오준 ⑧
▲권정만 ⑦ ▲권지혁 ⑨ ▲김 충 ⑤
▲김 활 ⑥ ▲김경석 ⑤ ▲김경용 ⑦
▲김광원 ⑥ ▲김규은 ② ▲김규태 ③
▲김대영 ⑤ ▲김도수 ⑦ ▲김동균 ④
▲김동주 ⑦ ▲김상구 ⑧ ▲김상섭 ⑤
▲김상윤 ⑥ ▲김석일 ⑤ ▲김선원 ⑦
▲김선일 ⑦ ▲김성중 ④ ▲김수원 ⑤
▲김영대 ⑤ ▲김영식 ⑥ ▲김익상 ⑥
▲김일환 ⑥ ▲김재풍 ⑦ ▲김정수 ⑦
▲김정태 ⑩ ▲김종명 ② ▲김준기 ⑩
▲김준희 ⑦ ▲김진영 ⑦ ▲김창석 ⑨
▲김창선 ④ ▲김충락 ⑦ ▲김철현 ④
▲김태수 ⑨ ▲김태욱 ④ ▲김태호 ⑦
▲김풍오 ⑦ ▲김학근 ③ ▲김학봉 ③
▲김현태 ⑧ ▲김형도 ③ ▲김호대 ⑦
▲김호영 ⑥ ▲김홍수 ⑦ ▲김희수 ①
▲김환열 ② ▲김훈주 ⑦ ▲나형용 ③
▲노병환 ⑩ ▲류기수 ② ▲목영동 ⑥
▲문병수 ⑥ ▲문정석 ⑦ ▲민성재 ⑦
▲민화식 ⑦ ▲박광만 ① ▲박성수 ⑦
▲박성훈 ⑦ ▲박연상 ⑧ ▲박영하 ⑦
▲박용원 ⑦ ▲박일후 ⑥ ▲박재범 ②
▲박종국 ② ▲박종순 ⑦ ▲박준범 ⑤
▲배영훈 ⑦ ▲배유석 ③ ▲배태식 ⑥
▲백상진 ⑨ ▲변대규 ③ ▲봉영채 ⑥
▲서동균 ⑨ ▲서선덕 ⑦ ▲석찬균 ⑦
▲설운호 ⑦ ▲설인환 ⑤ ▲설현주 ⑥

▲성진동79 ▲소재천67 ▲손완주59
▲신용자84 ▲신인수77 ▲신재기86
▲심재건77 ▲심정섭98 ▲심형섭76
▲심호섭89 ▲안상섭89 ▲안석로83
▲안홍삼70 ▲양석희86 ▲염성용65
▲염재성77 ▲염치호60 ▲여인갑68
▲염병대69 ▲염유신83 ▲오명환90
▲오석해50 ▲오영민84 ▲오주석83
▲유정수81 ▲윤계섭67 ▲윤국로71
▲윤석구67 ▲윤승중65 ▲윤호기74
▲이경석60 ▲이경중79 ▲이경훈91
▲이광복71 ▲이광호84 ▲이규정70
▲이남구75 ▲이대선85 ▲이덕봉77
▲이덕열81 ▲이동수66 ▲이문득63
▲이문보60 ▲이상국84 ▲이상돈88
▲이상수78 ▲이석룡74 ▲이석형74
▲이성근61 ▲이성관60 ▲이성호89
▲이영수76 ▲이영조76 ▲이영화87
▲이완기59 ▲이완수68 ▲이인수71
▲이재선73 ▲이재영62 ▲이정우65
▲이종길92 ▲이종웅61 ▲이종화55
▲이창근63 ▲이창복73 ▲이창욱76
▲이철호87 ▲이태길69 ▲이해건70
▲이해준94 ▲이호주84 ▲이홍재80
▲이희문66 ▲이희영93 ▲임석근64
▲임진벽67 ▲장기복92 ▲장길주64
▲장원일77 ▲장정오59 ▲장진태90
▲정 일66 ▲정강민71 ▲정범동78
▲정석운67 ▲정순천70 ▲정영기80
▲정우진64 ▲정운용90 ▲정진구93
▲정철진61 ▲정형근75 ▲정화구94
▲정휘원65 ▲조규홍71 ▲조대연87
▲조선용55 ▲조성민92 ▲조영진80
▲조재설97 ▲조재정79 ▲조정민88
▲조창한59 ▲조혁래92 ▲조혜경87
▲주 진86 ▲주동진71 ▲주은심85
▲지계광60 ▲진영현77 ▲차석주85
▲채성기63 ▲최영철88 ▲최용현80
▲최원길74 ▲최장동60 ▲최대선84
▲최하경83 ▲한동섭53 ▲한상서95
▲한승환89 ▲한영호73 ▲한은석77
▲한정빈67 ▲한진수98 ▲홍도천73
▲홍순채71 ▲황 연83 ▲황부연94
▲황상무77 ▲황일수83 ▲황호남71

◇農科大學

▲고미진98 ▲고홍석76 ▲곽 현96
▲구자욱71 ▲권 혁87 ▲권종석84
▲김동환74 ▲김명주88 ▲김민준98
▲김석구65 ▲김석태65 ▲김성환64
▲김용호94 ▲김용훈83 ▲김인재84
▲김재영97 ▲김재형92 ▲김정국47
▲김종덕89 ▲김종민88 ▲남용희69
▲문경수97 ▲박선홍73 ▲박성수80
▲박시형91 ▲박인숙98 ▲박찬민66
▲배영환80 ▲서진원66 ▲손병문96
▲송장원97 ▲신민범92 ▲신민호62
▲신원집64 ▲심상우61 ▲염익환82
▲오윤진60 ▲우창명70 ▲유유상72
▲유충렬78 ▲유태봉64 ▲유한상87
▲윤석복67 ▲윤재섭90 ▲윤희석70
▲이강민98 ▲이근희70 ▲이근상58
▲이달문66 ▲이두철88 ▲이범호74
▲이병구90 ▲이상원90 ▲이상수86
▲이왕우71 ▲이용양92 ▲이용화63
▲이인영73 ▲이재문65 ▲이정근84
▲이중준72 ▲이지형68 ▲이철승95
▲임승규61 ▲임채원66 ▲장 욱77
▲장영주89 ▲정동원65 ▲정병현66
▲정종홍95 ▲정주영94 ▲정해각61
▲조태호58 ▲주재홍92 ▲최규홍58
▲표문수74 ▲한연희71

◇文理科大學

▲강경식66 ▲강세원60 ▲강신표59
▲강인구63 ▲계창호54 ▲고화숙75
▲곽원호72 ▲권영빈65 ▲김담구64
▲김성무60 ▲김영석75 ▲김용진63
▲김윤희57 ▲김재필59 ▲김종환65
▲김태성72 ▲김태승64 ▲노영립70
▲박시정60 ▲박영원74 ▲박정기70
▲박종영65 ▲박준병60 ▲박준형72
▲박태환59 ▲배우근65 ▲부유남67
▲서문장70 ▲서창모65 ▲선우영일68
▲성세열63 ▲신경섭72 ▲신창우57
▲안현수73 ▲오병철65 ▲문증렬72
▲유연수63 ▲이강용67 ▲이금동65
▲이병환56 ▲이석구63 ▲이수찬75
▲이신복60 ▲이우동54 ▲이원근73
▲이재인60 ▲이정순67 ▲이진욱65
▲이학래66 ▲이형수67 ▲정명수71
▲정익성61 ▲정일정67 ▲정홍근66
▲조순철69 ▲조진형64 ▲최완수65
▲한동목63 ▲홍계선69

◇美術大學

▲김동선57 ▲김지열60 ▲문경원98
▲민진경88 ▲박영근88 ▲안문자61
▲왕준희93 ▲유제국63 ▲윤기연98
▲이만희66 ▲장동광88 ▲전민숙78
▲조국원65 ▲차명희70 ▲최기숙68
▲최미순83 ▲최상린65 ▲한옥희63
▲함지승98

◇法科大學

▲강일원82 ▲고의영81 ▲곽창욱62
▲구상진72 ▲김계인68 ▲김남준67
▲김도영90 ▲김두식69 ▲김병욱73
▲김부식87 ▲김상국81 ▲김성한68
▲김성훈60 ▲김인승54 ▲김종훈87
▲김준환64 ▲김진영73 ▲김철자63
▲김한성87 ▲김형철63 ▲김홍재57
▲남용희59 ▲문경화98 ▲문호철88
▲박갑식88 ▲박경민80 ▲박광우81
▲박동운44 ▲박문태81 ▲박민표86
▲박영근64 ▲박영수79 ▲박종현94
▲박태훈70 ▲석동준68 ▲성문용67
▲신명중80 ▲안창수57 ▲우영화66
▲유택중54 ▲이광민87 ▲이근식47
▲이근운83 ▲이기원57 ▲이덕남77
▲이무상84 ▲이병수62 ▲이상건62
▲이우상70 ▲이철규70 ▲이평호75
▲이형하78 ▲장명범72 ▲정경호99
▲정규상86 ▲정인숙85 ▲조승식74
▲조한룡39 ▲최낙현58 ▲최영기56
▲최춘근76 ▲한문철85 ▲홍승채68
▲황도연66

◇師範大學

▲강병찬60 ▲고미형79 ▲구본안65
▲권문한78 ▲권태원64 ▲권혁봉60
▲김기민79 ▲김기욱40 ▲김병국60
▲김봉근64 ▲김상훈54 ▲김선주80
▲김성래61 ▲김성식61 ▲김소연89
▲김시곤67 ▲김영빈98 ▲김영웅73
▲김옥희70 ▲김재문66 ▲김정용82
▲김주현61 ▲김지은66 ▲김현미86
▲남상우51 ▲문형섭91 ▲민병철65
▲박기식83 ▲박동렬67 ▲박미선92
▲박영도92 ▲박인호57 ▲박종삼63
▲박환운69 ▲백명기55 ▲서정율51
▲서창우87 ▲소인철99 ▲송두현69
▲심광한62 ▲심광현62 ▲안승룡82
▲우근룡69 ▲이강범61 ▲이광복83
▲이길자67 ▲이방렬69 ▲이봉삼61
▲이상요78 ▲이상익61 ▲이석철79
▲이성호62 ▲이순원68 ▲이시훈61
▲이웅상77 ▲이은진65 ▲이지연66

▲임규성69 ▲장경성79 ▲장완배66
▲정경자93 ▲제귀연94 ▲조규승55
▲진경희86 ▲최상률77 ▲최윤경87
▲최정숙57 ▲추암석72 ▲추인호75
▲한난숙45 ▲한영희55 ▲허윤구47
▲홍갑표63 ▲홍경식46 ▲황재근61

◇商科大學

▲강대호52 ▲구갑서59 ▲김도연68
▲김정광60 ▲김정훈54 ▲김종의65
▲김천기66 ▲김대연65 ▲민경호62
▲서병익65 ▲송성권54 ▲송승호65
▲양기정73 ▲연기화72 ▲유시탁72
▲이교섭75 ▲이만용59 ▲이병주71
▲이성희55 ▲이성호62 ▲이영웅64
▲이재국65 ▲장기욱56 ▲장지상78
▲정재창64 ▲정조홍65 ▲정찬철74
▲정태웅71 ▲주영화48 ▲진영수67
▲채길수57 ▲최규익59 ▲최종훈65
▲탁승호72 ▲홍순의70

◇獸醫科大學

▲강성봉72 ▲김팽웅65 ▲김수업54
▲김종건69 ▲김창수68 ▲박노연70
▲서영철74 ▲손태영54 ▲신현덕84
▲염영호85 ▲이문성64 ▲이병상82
▲이성권90 ▲이성준88 ▲이영원93
▲임정목67 ▲정자영88 ▲최현두76

◇藥學大學

▲강순철59 ▲공영운64 ▲김 식72
▲김기현56 ▲김혜경90 ▲김휘배65
▲맹민영60 ▲박건구83 ▲박종우56
▲박종호71 ▲박준석67 ▲박지용50
▲서남현63 ▲서대석82 ▲서준석61
▲손인기97 ▲송재영60 ▲신진용77
▲심관섭56 ▲심창무59 ▲이갑희57
▲이봉용79 ▲이성우74 ▲이승하78
▲이오직54 ▲이종현78 ▲이진표59
▲임경민95 ▲정대인71 ▲최두련54
▲최명식68 ▲최진곤81 ▲한연해97
▲홍옥선59 ▲황환상57

◇音樂大學

▲강기웅73 ▲강소정92 ▲강신자60
▲구분주92 ▲김동신90 ▲김양재74
▲김영희74 ▲김인영84 ▲김현정92
▲남지운86 ▲류진화90 ▲문병찬61
▲문영애69 ▲박경자74 ▲배영란60
▲서승미93 ▲서한범69 ▲설경아81
▲송원숙50 ▲송운옥80 ▲신계휴63
▲신규곤85 ▲신윤식74 ▲신혜정86
▲양혜숙72 ▲유슬기91 ▲유화자63
▲이복수86 ▲이영주95 ▲이정선85
▲이정화93 ▲이주형94 ▲이해식69
▲임정민93 ▲장해리86 ▲정은자87
▲정홍자65 ▲조영남64 ▲채성희80
▲최경일95 ▲최영아90 ▲최용호72
▲한기세75 ▲한나숙78 ▲한주연88

◇醫科大學

▲강숙경98 ▲강희중82 ▲권성택84
▲김계태73 ▲김광식85 ▲김기환66
▲김내준53 ▲김수웅88 ▲김재일64
▲김정현73 ▲김종우77 ▲김준열62
▲김창은61 ▲김대준94 ▲김현규89
▲김형진89 ▲노명덕66 ▲노충희76
▲박경찬80 ▲박양희76 ▲서홍규53
▲송영욱80 ▲신상진91 ▲이 열81
▲이권호65 ▲이규주84 ▲이남수48
▲이동섭88 ▲이상록89 ▲이재담79
▲장영길64 ▲전대환55 ▲정기석83
▲조대운77 ▲최인용98 ▲최종운83
▲하일수80

◇齒科大學

▲구연우58 ▲구자선62 ▲김광희56
▲김사식79 ▲김성하50 ▲김종훈83
▲김태건99 ▲김태의67 ▲김혜숙77
▲노희서44 ▲박경준79 ▲배현성71
▲백선호79 ▲송광엽81 ▲심경숙85
▲양희택75 ▲우상민67 ▲유양석49
▲윤석대80 ▲이병훈79 ▲이상신56
▲이수종67 ▲이인경88 ▲이장규59
▲이종철82 ▲이종훈61 ▲임종호88
▲전용구66 ▲정교현62 ▲정필훈79
▲제만희75 ▲조 민89 ▲주영숙59
▲한택동38 ▲홍성팔88

◇大學院

▲김원진64 ▲김정호87 ▲문형근81
▲민경희88 ▲서영수92 ▲심상훈79
▲오문성86 ▲유인호86 ▲윤재범84
▲이 순96 ▲이시우91 ▲이지선90
▲장동주81 ▲조태현83 ▲최병래87

◇經營大學院

▲김영석94 ▲김태식92 ▲오성연70

◇保健大學院

▲권오근69 ▲권혁한77 ▲김세영85
▲이영화75 ▲전대운77 ▲정춘영68

◇新聞大學院

▲김시복70 ▲박찬순72 ▲변정민77
▲이요섭69 ▲최영일75

◇行政大學院

▲강장석80 ▲고윤환86 ▲김범용70
▲이채호70 ▲최종술75

◇環境大學院

▲강은순74 ▲고재경95 ▲김현석93
▲유동주76 ▲정찬옥92 ▲황길연97

◇최고경영자과정

▲강만희51 ▲강희조26 ▲구학서49
▲권영국16 ▲권혁호32 ▲김강정48
▲김건지42 ▲김두환17 ▲김석연9
▲김영도23 ▲김유산51 ▲김종태43
▲김진수51 ▲김홍주25 ▲라종익48
▲문정국31 ▲박은현51 ▲박정훈29
▲박준형2 ▲박현수36 ▲백우현48
▲송보열21 ▲송석상47 ▲송철호37
▲신동호33 ▲안상수40 ▲안치한31
▲양재봉1 ▲양창화15 ▲이대성51
▲이병정8 ▲이영열46 ▲이용근38
▲이웅상40 ▲이종태50 ▲이종훈38
▲이진선36 ▲이희상22 ▲이희섭17
▲임태수28 ▲장윤태6 ▲전성훈51
▲정인영41 ▲조봉구19 ▲조석래11
▲조종석32 ▲차준근51 ▲한성희43
▲한종희28 ▲허 승50 ▲황상렬11

◇최고산업전략과정

▲고희수25 ▲곽문연8 ▲권오열22
▲김경숙20 ▲김기민13 ▲김남준25
▲김서곤11 ▲김완규15 ▲김용석25
▲김정호11 ▲김종수25 ▲김한용25
▲나홍배23 ▲박도관1 ▲배기선25
▲심종덕15 ▲여인석10 ▲염석훈7
▲원정희7 ▲유석현11 ▲윤장진11
▲이 결4 ▲이건창5 ▲이상범9
▲이상원20 ▲이상호8 ▲이전우13
▲이태화16 ▲이현일4 ▲전임현5
▲조낙석23 ▲조성환21 ▲채규평3
▲최성남11 ▲최영우12 ▲한상규21
▲황용환17

◇국가정책과정

▲김동일42 ▲김성은30 ▲김승영43
▲김영길49 ▲김장원38 ▲김재우37
▲김종식38 ▲김창기36 ▲김태영29
▲김태원44 ▲김한욱52 ▲남궁혁24
▲남상해47 ▲민병서22 ▲민병섭22
▲박명규40 ▲박용호48 ▲박용호50
▲박정구38 ▲방호복51 ▲손호인6
▲송성갑51 ▲신용웅42 ▲신인호62
▲안광찬46 ▲안영기30 ▲양인석35
▲유용열66 ▲윤창국51 ▲이관표12
▲이달화24 ▲이동호22 ▲이병정25
▲이상구6 ▲이희수49 ▲임규홍34
▲장호경27 ▲전덕성21 ▲전병순42
▲정석홍20 ▲조병창31 ▲조영래34
▲채증식13

◇고급금융과정

▲강태훈2 ▲고광석10 ▲고태순15
▲김원현6 ▲김종엽9 ▲신충식10
▲이 명8 ▲이명근5 ▲이승열3
▲임재용5 ▲장병목14 ▲장인택8
▲정안준16 ▲정대식13 ▲조현석11
▲허 영14 ▲홍재문10 ▲황용창11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박준서4 ▲손현구3 ▲유희용4
▲이기재3 ▲이창근1 ▲임명수4
▲전우대2 ▲차진태6

◇가정간호수습과정

▲김매자8 ▲박희심1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두완5 ▲김정행5 ▲박대순1
▲배철호4 ▲백낙운7 ▲서평근5
▲손용인4 ▲유재복5 ▲이동훈5
▲이철주6 ▲전한철7

◇보건의료정책관리자과정

▲김 현5 ▲김명관6 ▲김봉기3
▲김종길4 ▲김종운3 ▲김천식1
▲김행진7 ▲류재광6 ▲유승렬7
▲윤덕보1 ▲이계복2 ▲이무남5
▲이준영2 ▲전혜숙3 ▲정홍균4
▲최호준8 ▲홍광식3 ▲홍성희3

◇해양정책최고과정

▲배진성1

분 담 금

◇춘천교대 지부

▲강태완 ▲권덕원 ▲김광명
▲김남일 ▲김상욱 ▲김왕근
▲김정휘 ▲김홍수 ▲나병소
▲노경주 ▲박민수 ▲박준수
▲배성재 ▲백정자 ▲서동엽
▲심우엽 ▲이길중 ▲이대형
▲이도영 ▲이민우 ▲이성영
▲이영문 ▲이완섭 ▲이재봉
▲이형준 ▲이환기 ▲장병기
▲장성모 ▲전홍열 ▲조동섭
▲추병완

합 계 : 36,936,624원
입회비 : 20,000원
총 계 : 589,646,792원

동문의 소리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 절실해

李泰恒(77년 社會大卒)세종연구소 지역연구실 연구위원



『중국 진출을 통해 한국의 활로를 찾는데 1년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아니면 그 이후에 중국 때문에 우울해질 것이다』 일본의 세계적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의 진단이다. 중국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변화가 빠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야.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니 이것이 중국 연구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90년에 논문 작성을

미국·중국처럼 학위 마칠 때까지 돈걱정 안하고 공부했으면

위한 현지조사차 北京大에 한달간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한국에 비해 약 20년 정도 뒤떨어진 사회에 있었으며 대학도 건물이 아주 낡고 효율적인 데라고는 없는 곳으로 비쳐졌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다른 교육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은 적지만 용돈도 받고 있었다. 미국과 같이 풍부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비록 박사급은 아니더라도 교수의 숫자도 엄청나 학생대비 교수의 수는 선진국보다 못하지 않았다.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건물과 교수의 질도 높아졌다. 유학 열기가 대단하지만 국내에서의 인재양성 노력도 이에 못지 않다. 중국의 MIT라 불리는 칭화(淸華)대는 아예 대학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동을 하면서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변화에 대해 너무 둔감하거나 안이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문리과대학 마지막 학번으로(그 이후 계열별 모집) 대학 1학년을 공릉동, 2학년은 동송동, 3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관악에서 보내면서 기숙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시국도 어수선한 데다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쪼개야 하는 입장에서 통학하는데 왕복 3~4시간이 소요돼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숙사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근본적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학부 졸업 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학위를 마칠 때까지 돈걱정 안하고 공부할 수 있는가? 고시보다는 진지하게 기초 학문이나 과학 기술 탐구를 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중국은 60년대에 핵무기 발사를 성공시킬 정도로 과학연구에 투자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 자녀가 『나 이공계 갈래』를 부모에 대한 위협으로 써먹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학 연구자들의 사기가 낮다고 한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서울대 동문으로서 또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배지나 버클을 쓰다듬으며 자부하기에 앞서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서울대인들 모두가 합심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을까. 중국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노력에 동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沈福子(81년 家政大卒)송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그동안 「용서」라는 말을 입에 잘 울리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남을 「용서」할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이고, 둘은 「용서」를 구할 정도로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드물며, 셋은 「용서」 이후의 관계변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군사독재의 기나긴 세월 동안 「왜곡된 구조」와 그 속에 「갈들어진 군상」들이 빚어낸 비린내와 구린내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진동하면서 「참회 없는 용서」는 「면죄부」일뿐이라

는 진실을 웅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 탓이오」운동이 한창 벌어졌을 때도 「내 탓」 못지 않게 「내 탓」도 잘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다며 못마땅해했었다.

그러던 내가 며칠 전 우연히 화장실에 있는 작은 책 「상처와 용서」를 끌라잡았다. 「광야 선 인간」, 「본질을 사는 인간」,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 등은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상처와 용서」는 손에 쥐기를 꺼려했었는데 말이다.

그만큼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용서

상처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진리가 마음을 흔들고

해주고 싶지 않는 마음의 벽이 높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처럼 제일 하기 어렵고, 싫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따라 생각이 바뀐 것이다. 내 허물이 용서돼 다시 되살아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가슴을 열고

있었다. 단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지는 않은 마음은 아니었다. 상처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날 따라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겼다. 우리 나라에서 꽤나 인기 있는 달마 대사가 말했다.

『마음, 마음, 마음이며, 참으로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웅크려지면 바늘 하나 꿰을 자리가 없으니...』하고 말이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오그라드는 법이다. 그러나 오그라들면 들수록 상대방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게 되는 법이다.

필자의 남편(이태복)은 두 달 동안 자신에게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면서 사선을 넘나들게 한 이근안씨가 자기 아들의 눈병난 눈을 보고 가슴 아파 하는 것을 보고 「당신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지 말라』 칼릴 지브란의 말이다. 「정의란 바로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청하지 않아도 뉘우침이란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며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만든다」

올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리라 마음 먹어본다.

새 인생을 준비하는 30대 후반

朴鍾生(92년 人文大卒)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



최근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 궁금한 친구들 소식을 들었다. 한 친구는 7년만에 사시에 합격했고,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친구는 국내 증권기업에 다니는데, 자신은 AICPA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30대 후반에 이미 들어선 나이인데도 이제야 자리를 잡거나, 여전히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필자 또

한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학 때 게을렀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하지 못한 공부를 뒤늦게 하고 있다.(물론 뒤늦게 대학 캠퍼스에 가서 공부하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다들 열심히 살려는 의욕은 높이 살만 하지만 뭔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이유이든 사회적 이유이든 간에 적잖은 386세대들이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

리라 생각한다. 이런 삶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 물론 고용주나 사회 전체에도 적잖은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 미리 자신의 인생을 준비했다면 사회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보낸 대학생활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었지만, 최근 동창 모임에 갔다와서 그도가 더해졌다. 그때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대학 시절에 자신의 인생설계도 그리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수 있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

기 때문이다.

요즘 관악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다. 고시열풍이 분다거나 하는 피상적인 얘기들은 접했지만 실상은 잘 모른다.

물론 세상에 흥미로운 일과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몰랐지만, 똑똑한 요즘 세대들은 이미 알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지금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대학 때 자신들의 인생 설계도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